

**시청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5

연구진

연구책임 성동규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원 김성희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
2. 현대 도시 환경에 대한 이해	7
2.1. 도시 환경과 도시 생활	8
2.2. 현대 도시 공간의 딜레마	11
2.3. 공공환경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 이미지	14
2.4.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광장 및 해외사례	19
3.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	27
3.1. 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	28
3.2. 서울광장의 건설과정 및 의의	30
3.3. 서울광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35
3.4. 서울광장의 일반적 이용현황 및 문제점	45
4.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47
4.1.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8
4.2. 서울광장 이용현황	49
4.3. 서울 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56
4.4. 소결	65
5. 결론 및 제언	70
참고문헌	76
부록	81

표 차 례

<표1>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15
<표2>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16
<표3> 서구와 한국의 광장 개념 비교	20
<표4> 광장의 5가지 기본 형태	21
<표5> 행위 유형에 따른 광장	22
<표6> 서울광장 추진 과정	31
<표7> 시청 앞 광장의 주요 사건들	32
<표8> 시청 앞 광장 일대 분석의 종합 및 잠재력	33
<표9> 서울광장 추진 배경 및 목적	34
<표10> 시청 앞 광장의 기본 구성안	35
<표11> 서울광장 전시회 개최 현황	38
<표12> 서울광장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개최 현황	39
<표13> 서울광장 각종 기념행사 개최 현황	42
<표14> 서울광장 캠페인 및 집회 현황	43
<표15> 서울광장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71
<표16> 광장 시설 및 관리에 관한 개선안	72
<표17> 광장 행사 및 프로그램 개선안	74

그 립 차 례

<그림1> 트라팔가 광장	23
<그림2> 파리 시청사 광장	24
<그림3> 쇼우버 광장	25
<그림4> 내용별, 주최별 서울광장 프로그램 개최 현황	44
<그림5> 서울광장 이용 횟수	50
<그림6> 서울광장 이용 계절	50
<그림7> 서울광장 이용 요일	51
<그림8> 서울광장 이용시간대	51
<그림9> 서울광장에 머무는 시간	52
<그림10> 이용하는 교통수단	52
<그림11> 서울광장 이용목적	52
<그림12> 연령별 서울광장 이용목적	53
<그림13> 서울광장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	54
<그림14> 가장 인상 깊은 서울광장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55
<그림15> 광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	56
<그림16> 광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57
<그림17> 광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	58
<그림18> 광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0
<그림19> 서울광장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61
<그림20> 서울광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62
<그림21> 서울광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63
<그림22> 서울광장 시설 및 운영의 개선점	64
<그림23>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향	65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몇 해 전부터 전 세계 도시는 ‘자연’과 ‘문화’라는 화두를 도시 곳곳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거나 혹은 도심 속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화도시란 문화시설을 곳곳에 자리 잡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편에 바탕을 둔 문화 공간 만들기가 반드시 요구된다. 물론 문화공간은 일반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문화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협의의 문화공간’, 즉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거리로 구분되는 문화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일상적 삶이 이어지는 다양한 일상공간 역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문화연대, 2002:20). 따라서 문화도시 만들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환경, 일상적인 문화 환경,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도시환경이다.

이러한 문화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보행자 위주의 거리이자 각종 만남과 활동의 공간이 되는 도시 광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도시 광장은 도시인들의 사회·문화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공 공간인 동시에, 한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성, 도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시청 앞 서울광장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은 시청거리라는 역사적·상징적 도시 공간 속에 전례 없는 대규모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었고, 하루 평균 2-3만명이라는 수많은 이용객들과 크고 작은 일상적인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정치집회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

터, 편의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인 도시 광장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문화광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서울광장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도시 광장은 행동의 장, 맥락, 과거의 경험, 심리적·정신적 상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장소로 도시 혹은 공간의 정체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광장 그 자체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광장을 둘러싼 자연적·인공적 요소들,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도시 광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소적 맥락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광장과 함께 주변적 다양한 요소의 적절한 결합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에서 보여준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서울의 문화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서 그리고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 기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서울광장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도출해 봄으로써 더욱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광장의 이용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광장 이용객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운영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운영에서 보여준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서울의 상징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 또한 서울광장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도출해 봄으로써 더욱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방향을 제시.

- 이를 위해 서울광장의 이용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이끌어 냄.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서울광장이 도시공간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도시 환경의 특징과 문제점 짚어보고, 그 속에서 대표적인 도시 공공 공간인 오픈스페이스가 지니는 의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로서 광장이 지니는 의의와 연관하여 서울광장의 건설배경 및 과정,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 및 전제를 살펴 보겠다. 이를 토대로 5월 개장 이래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하고, 기존의 평가를 정리하여 서울광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이용객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서울광장의 운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의 공공 공간인 오픈스페이스로서 서울광장 사회·문화적 의미
- 서울광장에서의 주요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평가
- 서울광장 운영상의 문제점 조사
- 이용현황, 만족도,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 제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 도시환경과 도시환경의 대표적인 공공 공간인 오픈스페이스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심 속 광장이 지니는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기존 문헌 및 연구논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서울광장의 조성 과정과 목적, 시설 및 일반적인 이용현황, 운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그간 보도되었던 언론 보도 자료를 카인즈(www.kinds.or.kr) 검색을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기간은 서울광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광장을 찾고 있는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및 이용만족도, 그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약 1주일 간 서울광장에서 104명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현대 도시 환경에 대한 이해

- 2.1. 도시 환경과 도시 생활
- 2.2. 현대 도시 공간의 딜레마
- 2.3. 공공환경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 이미지
- 2.4.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광장 및 해외사례

2. 현대 도시 환경에 대한 이해

2.1. 도시 환경과 도시 생활

도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 생활에 제공되는 장소이며 자연적인 요소보다 인공적인 요소가 보다 지배적인 환경이다. 또한 동시에 도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의 조직윤리를 지니는 하나의 구조이자 인간의 도시생활과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생활환경이다. 그러나 양 측면의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도시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리 제기된다.

도시환경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김영아, 2001:6).

첫째, 도시는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으로 인간의 중재에 따라 수정가능하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도시 환경은 인간 활동의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형성의 주체인 인간은 개별 행위자인 동시에 사회구조적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도시 환경 역시 문화적 형성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도시 환경이 문화적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시각언어로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환경이 도구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체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도시 환경의 의미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형태가 의미를 일관되게 고정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의미의 폭에 대한 일련의 한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이 의미 전달체라는 명제를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도시 환경의 독립적 영역 혹은 독립적 발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도시 환경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도시는 일단 만들어지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수 없는 존속과 운영의 독자성을 띠게 된다. 이는 도시 환경의 형성주체에 인간행동이나 물리적인 제약조건이 반드시 첫 번째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관

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각각의 관점은 도시 혹은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도시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되어서 처음에는 그릇 자체, 즉 구조물과 도로 등 도시의 구조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김철수, 2001:18). 달리 말하자면, 도시는 그것의 물리적 형태와 그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기능이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환경은 그것이 건물·도로·시장 등의 유형적 요소이든 축제·행사 등의 무형적 요소이든 그 외형구조는 항상 물리적 형태와 사회적 기능의 복합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즉, 도시는 외부적 형태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의미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관성에 의하여 파악된다(김철수, 2001:19).

한편, 도시인들은 도시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화’하고자 한다. 인간이란 동물은 상징적인 동물이다. 그들은 자기가 지각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도시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도시에 관한 특정한 ‘상징성’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도시인들의 체험은 일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체험에서부터, 그 자극에 배어 있는 느낌과 의미, 나아가서는 물리적 자극이 인간의 존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철학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도시에서의 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에서의 시간체험이다. 이는 ‘역사성’으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다. 도시인들은 현재적 공간에서는 부재한 과거 사람들의 생활의 흔적과, 현재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현상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 예컨대 계절 및 하루 중 시간을 지각하고, 오래된 왕궁·성벽·비각 등을 통해 도시의 과거를 지각한다. 부연하자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은 시간과 더불어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된 의미가 축적되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성’을 창출해낸다.

둘째, 도시에서의 공간체험이다. 이는 역사적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공간적 지평, 즉 그 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장소성’과 연관된다.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고유한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각 공간이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닐 때 그 공간을 장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 부를 수 있다(김철수, 2001:21). 이러한 장소성, 즉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 더 나아가 한 장소 내의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장소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이웃하는 장소와 차별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이 전개될 때, 그 장소만의 특이성이 구성된다(황홍섭·박길자, 2002:231).

셋째, 도시에서의 의미 체험이다. 도시인들은 도시 내에서 인체의 5감을 통하여 1차 체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체험은 사람들의 가치·선호·세계관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적 작용을 통하여 2차 체험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 체험이다(김철수, 2001:21). 의미 체험은 또한 ‘사회성’ 혹은 ‘문화적 경험’과 연관된다. 삶의 양식은 시간적 경험과 공간적 경험의 상호작용, 공간을 구성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동시에 더 나아가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개인과 구조, 구조와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공간의 사회성을 형성해간다.

이와 같이 도시 내 인간의 삶의 총체는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성을 중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무수한 건축물들, 공원들, 구조물,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징물, 여러 가지 거리의 양상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양상들,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체들(representations)이 모여서 도시 생활

공간의 총체적 의미를 형성한다. 이들 의미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다. 도시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해가는 역동적인 공간인 것이다(황홍섭·박길자, 2002:232).

2.2. 현대 도시 공간의 딜레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에는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압축된 시·공간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유해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시인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도시 환경의 ‘상호작용’, 즉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 환경은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구조간의 ‘단절’을 낳고 있다.

서울 역시 그러하다. 실제 서울은 조화적인 것보다는 상충적이거나 갈등적인 것,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것, 인간적인 것보다는 반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보다는 반자연적인 요소들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체적 형태와 이미지를 결여한 건물들의 군집, 이들이 이루는 무질서한 도로 경관의 구성, 계통성을 갖지 못하는 토지 이용방식은 서울의 공간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이다(문화연대, 2002:33).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 공간구조 밑에 흐르는 사적 이윤의 논리, 공동체성을 결여한 이기적 주장이다. 이는 공간의 ‘상품화’를 야기한다. 공간이 상품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도시 공간에 자본주의 논리가 침투,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 공간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소유·관리되어 이윤창출의 도구로 이용됨을 의미한다(김철수, 2001:60). 자본에 의한 사적 공간의 확대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담론의 장인 공공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불균등은 도시 생활의 불균등, 즉 도시인들의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생활의 부조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외적인 도시 생활이란 공적, 사회적인 도시 생활의 한 측면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생활로써, 이러한 사회적인 생활은 도로나 광장, 대공원과 같은 시민의 활동적인 공간이나 상가와 같은 복잡하고 생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생활은 대개 거대한 도시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에는 많은 군중이 모여 사회인으로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어 나간다. 반면, 도시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인 내적인 도시 생활은 사적, 개인적인 측면을 말한다. 이는 자신 위주의 생활로서 정숙·격리되고 완전히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허원, 1984:7). 이 개인 생활에서도 다른 형태의 공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적 공간의 확대와 공공 공간의 축소과정에서 벌어지는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소멸은 ‘역공간(liminal space)’으로 이야기된다. 소비 공간에 문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 거리축제나 대중교통수단에 존재하는 상업광고,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점, 그리고 자가용으로 뒤덮인 도로 공간 등은 모두 역공간의 사례들이다(김철수, 2001:60). 이로 인해 도시, 특히 서울의 공간은 그 자체로 혼돈이다.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시키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킴으로써 도시인들의 방향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한편, 공공 공간의 축소와 기능 쇠퇴의 또 다른 원인을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철수, 2001:61~62).

첫째, 통신의 발달로 인한 면대면(face to face) 접촉의 필요성 감소이다. 통신수단 및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달은 대면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공론의 장으로 기여했던 공공 공간은 그 기능과 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오락기능의 발달과 오락공간의 실내화, 오락의 개인화 역시 공공 공간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TV·전자오락·인터넷 등

오늘날의 오락유형은 공동체적인 오락유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오락 유형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외부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실내에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

셋째, 주거형태의 변화이다. 소득증가로 인해 교외에 넓은 마당을 소유한 단독주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고층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 공동의 마당 역할을 했던 공공 공간의 기능 역시 줄어들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공공 공간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고층아파트 거주자는 단순히 조망하는 공간으로서 단지 내 공공 공간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새로운 근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종래에 이웃의 개념은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웃의 개념이 거리와는 상관없는 개념으로 바뀌고, 이웃끼리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의 의미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섯째, 공공 공간의 무책임한 관리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공공 공간의 공급이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건축주에 의한 의도적인 출입·이용방해, 과시적 장식의 경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공간에 대한 형식적인 인가와 관리, 그리고 이용자의 무관심과 공중의식 결여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도시공간의 딜레마, 즉 사적 영역의 확대에 따른 공공 공간의 축소는 도시인들의 조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공간은 앞서 논의한 도시에서의 인간 체험, 즉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환경에 공간적으로 머물면서 시간의 흐름과 정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편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환경에 대한 ‘장소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도시 환경 및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옛것과 새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인공과 자연 혹은 시간·공간·스케일·생활 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 공간은 이러한 도시 생활의 요소

들을 기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장소성의 구현을 지향하는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과 환경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도시 속에서 장소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물과 외부의 공공 공간이 가급적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통합되어지는, 특히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하여 열린 공간을 창출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만드는 것이다(김철수, 2001:237).

2.3. 공공환경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 이미지

도시 환경에서 오픈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개방 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인간 행동을 한정시키고 결정하기보다는 형태의 지원성(affordance)과 개연성(probability)을 강화시키는 공간이고, 공공적·준공공적 영역인 시대적 도시 공간의 세부구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오픈스페이스는 주로 사람들이 평소의 번잡한 환경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연적 풍경에서 정적인 위락을 요하는 장소를 의미했으나, 이후에는 점차 정적인 활동은 물론 능동적인 위락활동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도시 환경의 악화에 따른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완충녹지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김선화, 1996:50~51). 특히 도시 환경이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오늘날, 오픈스페이스는 공공 위생적인 공간에서부터 생물학적 필요로서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만남과 휴식의 장으로 도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회적 공간 혹은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김영아, 2001:9).

이와 같이 오픈스페이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은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환경, 환경과 사회, 사회와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

어 왔으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왔다. 따라서 오픈스페이스를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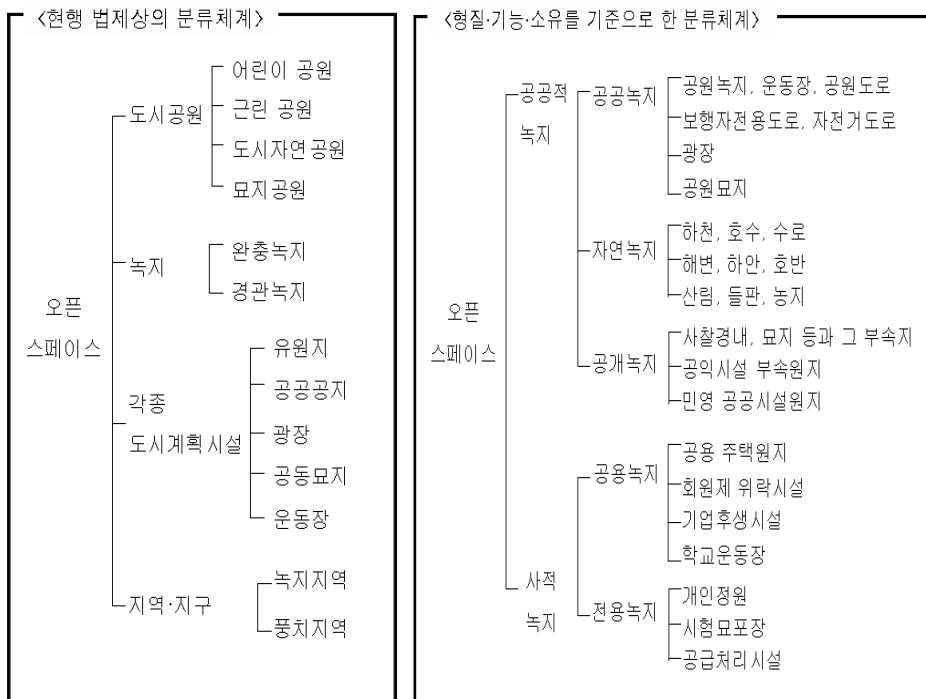
학 자	정 의
Stanley B.Tankel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토지와 수면의 모든 공간
August Hecksher	*건축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거나 건물군에 의해 감싸여져 있지 않은 공간이라야 하고, 이를 좀 더 사실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에 의해 씌워져 있지 않은 공간
Garrett Eckbo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집약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비 구조적 용도의 모든 공간
Kevin Lynch	*인간의 형태적 의미로써 오픈스페이스는 그 공간 내에 얼마의 건물이 서 있느냐하는 문제보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에 어느 정도 개방될 수 있는가의 문제 *오픈스페이스는 반드시 자연적일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 구조물에 의해 점유될 수도 있다. 어떤 공간이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그 공간은 열려지고 개방된 공간인 것.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형태적 정의라고 언급
C.N. Schulz	*육체적 행위에 대한 실용적 공간(pragmatic space) *직접적 정위의 자기중심의 지각적 공간(perceptual space) *환경에 관하여 인간에게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실존적 공간(existential space)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적 공간(cognitive space) *순수한 물리적 관계에 대한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

참고> 김영아(2001), “여의도 오픈스페이스 개선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화 (1996), “통합예술공간으로서의 도심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오픈스페이스란 다음과 같은 공간 및 지역을 의미한다. 첫째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된 개방된 지역, 둘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든지 공공에 있든지 관계없이 영속성(永續性)이 보장되어 있는 지역, 셋째 토지와 물 그리고 대기를 주체로 하는 비건축 공간, 넷째 리노베이션(renovation), 생활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안전, 시가지의 형태규제 등을 실행하는 데 있어 공공적인 필요성이 있는 공간, 다섯째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지 않고 앞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결정되어진 토지와 수면의 모든 공간(김성광, 1985:8)을 오픈스페이스라 말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은 여러 분류기준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크게 2가지의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출처> 한국조경학회(1986), 『조경계획론』.

이와 같은 오픈스페이스는 시민 모두의 공공 공간이 된다. 그것은 도시기능체계 내에서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장이고, 도시 활동의 핵이며, 도시 활기의 원천이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는 공공성을 가진 예술 형식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정보이며 에너지 시스템이다. 따라서 오픈스페이스는 공간(space), 인간의 움직임(movement), 활동(activities), 프로그램(program)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자율성과 예술적 행위를 통한 미적경험과 즐거움 역시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오픈스페이스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통합 환경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선화, 1996:49).

한편, 오픈스페이스는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된다. 린치(K.Lynch)는 ‘어느 도시에도 많은 개인의 이미지가 겹쳐진 결과로서, 하나의 공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 도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마다의 시점에 따라 각각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모여서 그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이미지, 즉 도시에 대한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선화, 1996:50). 즉, 인간은 도시 환경 속에 있는 여러 환경들로부터 그 도시를 체험하게 되며, 도시의 질에 대한 지각과 건물들 혹은 기타 객체들에 대한 전체 인상을 통해 환경의 전체 인상을 가지게 된다.

결국 잘 설계된 오픈스페이스는 인접한 건물을 비롯한 도시 이미지를 높여주고 나아가 도시의 장소성을 강화시킨다. 건물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오픈스페이스는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상징성과 기능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도시 환경의 주된 매체인 것이다(김영아, 2001:8). 특히 오픈스페이스는 현대 도시 이미지 형성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들은 도시 광장의 상징적 기념비를 강하게 인식시키고 나머지 건물은 일정 높이 이하로 건설하여, 구심적 이미지를 가지는 도시 이미지의 구현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현대 도시는 인구집중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 고도화를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에 없게 되었다(김영아, 2001:16).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대 도시는 도시 내의 오픈스페이스, 보행자 공간의 확보를 통해, 새로운 측면에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연출하고자 한다.

본래 도시의 공공환경은 물적 요소와 정보교환, 이를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 다채로운 요소가 만나는 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만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공환경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 매력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물리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감각의 문제이다. 린치는 환경평가의 보편적인 차원을 활력(vitality), 감각(sense), 적합(fit), 접근성(access), 관리(control)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성요소 혹은 매력의 요소를 크게 시간요소, 자연요소, 디자인된 요소로 정리할 수도 있다(김철수, 2001:243). 시간요소는 하루의 시간이나 계절의 변화, 역사적인 시간이 가져오는 매력을 말한다. 자연요소는 식물과 동물·물·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요소를 말하고, 디자인된 요소는 공간의 색채와 빛 등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요컨대,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범위에서 도시 생활의 질 향상과 역사·문화 환경의 적극적인 이용, 그리고 도시환경의 시각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각 오픈스페이스 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화현, 2002:19). 그리고 이러한 오픈스페이스를 통해 도시 환경에 대한 인간체험, 즉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성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광장 및 해외사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중에서도, 현대도시에서의 오픈스페이스는 주로 공원과 광장, 보행자용 가로가 함께 혼합되어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광장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한 구성인자이자,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도시 공간으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공공공간이다. 또한 광장은 도시 환경의 주요 이미지, 즉 도시의 특이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장소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광장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square, plaza, piazza, place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Webster 사전에서는 광장을 plaza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장은 도시나 촌락의 공공을 위한 넓은 공간(public square) 또는 개방 공간(open space)으로 시장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광장이란 도시나 집락들의 형상과 그 사회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정 이상의 넓이를 가진 공간을 말한다. 반면 한국의 국어사전에 따르면, 광장이란 너른 마당, 혹은 여러 갈래길이 모이는 곳에 만드는 너른 마당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건축대사전을 보면 광장이란 집회·시장·미관·교통 등을 위하여 설계된 공공적인 공간이고, 공공건물 앞이나 도로 교차점 등 도시공간의 요소로 설명된다(장태현, 1996:13).

하지만 서구와 같은 광장 모델을 한국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길에 의한 문화로서, 서구 도시에 있는 광장처럼 특정의 장소에 특정의 공간형태를 동반하여, 그 위에 특정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박상길, 2003:5). 즉, 역사적으로 한국의 광장은 마당 혹은 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건축물에 의한 물리적인 한정과 그 외부의 중심적 시설에 의해 출현한 서구의 광장과는 달리 비물리적 의미작용이 형성원리로 작용해 왔다. 서구와 한국의 광장 개념, 기능 및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서구와 한국의 광장 개념 비교

구분	서양	동양
명칭	*광장	*마당, 시장
배경 과 개념	*성곽도시생활 *종교 영향과 인본주의사상 내포 *자연환경여건이 광장형성에 영향	*농촌생활, 농업생산활동 *사상배경에 따라 공간에 의미함축 *기후조건 서구형 광장형성에 불리
구성 원리	*건축적 광장(물리적 한정)	*장소적 광장(비물리적 의미작용)
기능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 *시각적, 미적 효과의 환경 공간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시설	*종교, 사회, 경제와 밀접한 관련 *공간성격에 따라 행사, 생산, 놀이 *자연발생적 또는 제도적으로 조성
형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고정적임	*인적·물적·시공간적 여건에 따라 유기적 결합, 비정형적임
특성	*도시 중심에 위치 *도로의 결절점이나 초점 역할 *인공적 질서형성, 공간감 있음	*생활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 *도로변이나 중심 외곽 *자연적 여건에 순응, 공간감 부족
구성 요소	*건축적 배경과 편익시설 위주	*자연배경에 조화로운 수식시설

출처> 박상길(2003),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이와 같이 한국의 광장과 서구의 광장은 자연적·문화적 차이에 의해 공간적 형태와 발생의 기원이 다르다. 광장은 고유의 영속적 요인인 지형, 기후, 국가적 특성과 정적 혹은 동적 요인인 양식이나 시대상 등의 혼합으로 외양에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일정기간에만 유행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본형태가 존재한다. 주커(P. Zucker)는 광장공간의 원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표4> 광장의 5가지 기본 형태

광장 형태	공간의 특징
폐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공간을 지향, 가장 기본적인 형태 *원형 · 정방형 등 정형적 · 기하학적 형태 *고대 그리스 아고라, 중세의 회랑 ·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광장 *로마의 포럼, 파리의 보제(Vosges) 광장 등
축형(軸型)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개의 건축물 혹은 건축군에 의해 특징 *공간축을 형성하는 우위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광장 *중세의 사원, 관전, 시청, 분수, 극장, 역 등이 지배적 건물 *주변의 건축물은 배경으로 유도 *광장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는 주요 건물을 향하여 축을 형성 *로마의 산 피에트로(St. Pietro)광장, 파리의 베르사이유광장 등
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중앙에 수직적 요소인 기념물, 분수, 조각 등이 설치 *광장주변의 이질적 요소를 일체적으로 구성 *베네치아의 성 조바니라오로 광장 등
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나 형태가 다른 광장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전개, 연속 *축이 없는 공간구성으로 작은 광장이 큰 광장을 향해 개방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San Marco) 등
무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이 한정되지 않고 특정형태가 없는 광장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등

참고> Paul Zucker(1973), *Town and Square*, Cambridge Mass, The M.I.T, p. 6.

박상길(2003),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8~9.

한편, 이상과 같은 공간의 물리적 형태나 외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방식을 채택해 볼 수도 있다. 즉 행위 유형에 따라 보행광장, 교통광장, 행사광장, 만남의 광장, 놀이광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5> 행위 유형에 따른 광장

	특징
보행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통행이 제한, 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만남·휴식·산책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넓은 마당 *건축물군에 의하여 둘러싸인 중정(中庭)
교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의 결절점에 형성 *보행자보다 도로 및 차량을 중심으로 구성, 비인간적 공간 *인터체인지, 로터리 등
행사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집회·축제·퍼레이드를 위한 대규모 광장 *행사가 없는 동안은 단순한 오픈스페이스, 단조로운 공간 *베메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여의도 광장, 북경의 천안문 광장 등
만남의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이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약속장소로 이용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간단한 벤치,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는 분수·조각 등 배치 *현대에 이르러 소비의 기능과 결합되어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
놀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의 한국적 표현,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마을의 공동 공간 *행사가 있을 때는 다양한 공동체 놀이가 진행

참고> 김철수(2001), 『도시공간의 이해』, 지문당, pp.157~159.

이와 같이 광장은 물리적·비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광장이 종교·사회·경제·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의 주된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광장의 특징은 해외사례를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다. 서구의 광장은 대개 보행광장이자 행사광장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시의 특징적인 상징물과 함께 한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행사, 예컨대 각종 단체의 야회집회 및 무료공연, 축제, 퍼레이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있다.

우선, 행사광장이자 만남의 광장의 예로서 런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광장은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30년 설계하여 1841년에 완성했으며, 2001년에서 2003년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디자인된 광장이다. 국립미술관, 크림미아 전쟁기념비, 수상관저, 국회의사당, 시계탑, 템즈강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광장 주변에 산재해 있고, 광장의 내부에는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하는 50미터 높이의 기념비가 있으며 기념비를 둘러싼 네 마리의 사자상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칭을 이루는 2개의 분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영국인의 존경받는 인물들의 동상을 모아놓은 장소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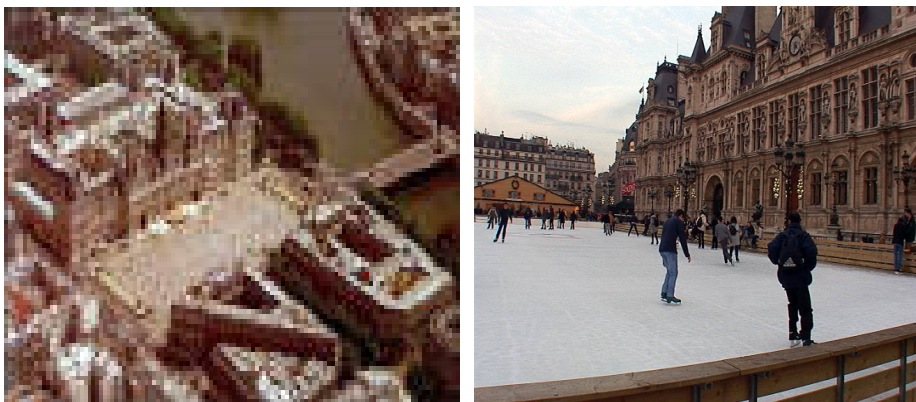
<그림1> 트라팔가 광장



현재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각종 단체의 야외집회 및 무료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광장 주변에 위치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광장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공사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팸플렛으로 제작·배포하거나,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파리 시청사 광장(Place de l'Hotel de Ville)이 있다. 파리 시청사 광장은 13세기 루이 9세의 관저 터였으나 1871년 파리고된 대화재로 소실된 후, 시민광장으로 재건되었다. 이 광장은 지난 세기 오랜 세월동안 부두, 사형 집행장, 실직자들의 집회 장소였으며 그 밖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져왔던 장소였다. 현재의 광장 규모는 19세기 중엽 파리 도시 계획을 담당한 오스만 남작에 의해 4배로 확장된 것이다. 3면이 도로와 접해있는 이 광장의 내부에는 최소한의 시설물만이 배치되어,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가변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림2> 파리 시청사 광장



파리 시청사 광장은 세레 요한 축제와 같은 각종 축제나 파리해방 기념식 등과 같은 중요 국가행사가 열리는 중심 광장으로서, 바스티유 광장과 함께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적 광장이다. 또한 이 광장은 광장 분수대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대규모 스케이트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서울특별시, 2003:35). 시청 앞 서울광장에 조성된 스케이트장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로테르담 쇼우버 광장(Schouwburgplein)이다. 1907

년 당시 지하 2층의 주차장을 광장으로 개발, 광장 주변의 문화시설을 위한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광장의 북측에는 콘서트홀이, 남쪽에는 극장이 있으며, 광장의 중앙부에는 대형 복합 영화관이 입지하고, 광장의 동서 방향으로 쇼핑 및 업무시설이 밀집하여 있다. 그러나 쇼우버 광장은 과도한 시설을 배제한 ‘비어있는 광장’으로 조성되었다. 즉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활동의 다양성에 따라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쇼우버 광장은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보행 등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바닥분수를 설치하거나, 시설물 등은 광장의 주변부에 배치하고, 야간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밖에 35미터 높이의 움직이는 조명탑, 디지털시계 등과 같은 여타의 시설물이 주변에 배치됨으로서 네덜란드 특유의 패턴을 디자인화하고 있다.

<그림3> 쇼우버 광장



쇼우버 광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고전적인 공공 공간이자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한다. 예컨대 시민들은 이웃과의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를 위해 쇼우버 광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스하키나 스케이트 등과 같은 간단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현대적인 쇼핑·문화시설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광장 내부 시설물로 인해 색다른 경험을 얻기도 한다.

요컨대, 해외 도시 광장은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시민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외 광장은 오랜 세월을 두고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건축가, 도시설계가, 도시계획가가 개입하였고, 당대의 최적안을 위하여 국제현상설계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변화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유서 깊은 건축물, 공연장, 대중교통수단 등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공기능의 건물이 집결된 공간으로 다양한 도시의 권력을 표출하면서 도시의 수많은 기억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3:40). 이는 공공 공간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 도시 광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행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이자 집회나 공공행사, 문화행사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집결지로서 광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

3.1. 광장의 사회·문화적 기능

3.2. 서울광장의 건설과정 및 의의

3.3. 서울광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3.4. 서울광장의 일반적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

3.1. 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장은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면서 생겨났다. 문자 그대로 광장은 사람이 모이기 위한 넓은 장이지만 도시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의사교환을 목적으로 하는가, 집회나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가,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를 결정 하는가 등의 단계에 따라 광장의 위치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광장의 기능은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광장을 특징지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계획된 광장은 고대 이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공허한 문자 그대로의 공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성종·고필중, 1999:119).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광장의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의식’을 응집시키고 소통시키는 장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즉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 발생적이든 정치적이든 ‘시민의 의식’을 응집하여온 광장은 도시설계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 개념은 광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를 설계한다는 방법론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광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거실이자 마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 광장은 동네의 마당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만남과 행사 등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공 공간이다. 즉, 도시 광장은 옥외활동의 중심이라는 공간적·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도시 광장은 도시 내부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 건물이 지배적인 도시를 거닐다가 광장을 만나게 되면 광장은 쉽게 인지되며, 기억에 오래 남는다(김철수, 2001:156). 따라서 도시 광장은 도시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환경의 ‘장소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현대에서의 광장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나 녹지

로서 도시 건축물군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시민들의 휴식이나 오락, 모임 등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역사적 또는 모뉴먼트적인 장소를 강조하고 기념하며 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초점으로서의 역할을 지닌다(김영아, 2001:11).

이렇듯 광장은 도시 공동체 생활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한 도시 속의 훌륭한 경관으로써 단순히 물리적으로 확대된 공간이 아니라 그 배경에 도시적 제반기능을 수반하는 공간이다(유헌준, 2001: 7). 현대 도시 광장의 기능 및 의의를 종합해보면 첫째, 도시 광장은 휴식과 만남, 담화를 즐기는 공간이다. 둘째, 광장은 행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놀이터이자 축제의 공간이다. 셋째, 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정치적인 공간 혹은 여론 형성의 장이다. 넷째, 광장은 힘과 권력 표현의 공간이다. 광장은 정치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종교적으로 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기능 및 의의가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간적 의미에 따른 의의는 첫째, 광장은 ‘중심 공간’으로서, 도시인들은 그 곳에서 도시의 중심성을 느끼고, 공동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은 도시인들의 외부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도시인들은 각자의 자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 둘째, 광장은 ‘비워진 공간’으로서, 사람과 행위의 채움을 유발한다. 이러한 광장은 개방성과 평등성, 자유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비워져 있고, 자유롭기에 대형행사나 집회, 이벤트 등이 벌어질 수 있는 다목적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의견과 정보, 안부 등을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면서 그 자체로서 삶의 공간인 것이다. 셋째, 광장은 ‘상징적 공간’으로, 도시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닌다.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종교적·정치적 활동의 장이기도 한 광장은 암묵적으로는 도시인들의 문화와 규범을 형성하는 곳이다(이정은, 2003:9~13).

3.2. 서울광장의 건설과정 및 의의

본래 시청 앞 광장은 국가의 상징 가로 계획의 하나로 서울의 중심적이며, 상징적인 장소로 다루어져 왔다. 서울시 시청 앞 거리조성 및 광장조성에 관한 안은 199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 등으로 인하여 보행광장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교통통제를 비롯한 여타의 행정 및 재정상의 문제로 광장조성에 관한 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서울 시청 앞 광장 조성에 관한 안이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설정되면서, 광장 조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서울광장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이라는 서울시정의 도시정책 하에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비전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06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을 위하여 2005년까지 도시에 3개의 시민광장을 조성 계획하였는데, 이후에 연이어 조성될 광화문·송레문 광장과 함께 서울광장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2년 말부터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얻기 위해 광장조성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곧바로 광장안을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1월 ‘빛의 광장’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빛의 광장’안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각되었고, 대신 2004년 2월 ‘잔디 광장’ 조성안이 본격적으로 제안·추진되었다. 서울광장 완공은 2004년 서울시의 중점과제이기도 했다. 서울광장은 “강북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요 시책 하에 진행되었는데, 이후 조성될 광화문·송레문 광장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계획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서울광장이 개장되었다.

<표6> 서울광장 추진 과정

1983. 2	◦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 용역결과, 시청 앞 광장 최초 구상
1992. 10	◦ 서울 정도 600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상징가로계획 검토
1994. 11	◦ 서울상징가로 조성계획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계획안 작성
1995. 4	◦ 국가중심가로계획(광화문광장, 시청광장, 남대문가로공원) 계획안 공표
1996이후	◦ 시민단체(도시연대)가 보행광장을 요구, 대안 제시
1996~98	◦ 광장 관련 몇 가지 검토
1998이후	◦ 고건시장 임기 시 내부적으로 시청 앞 광장계획 검토, ◦ 시청부지 일부를 공원화하고 원구단 전면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
1999	◦ 시범가로 기본계획 검토
2002. 6	◦ 월드컵을 거치면서 보행광장의 필요성 고조
2002. 7	◦ 신임 이명박 시장, 광장조성 추진의사 공표 ◦ 광장 조성안 서울 중요시책에 포함, 광장조성위원회 조직
2003. 1	◦ 시청 앞 광장안으로 ‘빛의 광장’안이 당선
2004. 2	◦ 시청 앞 광장안 수정, ‘잔디 광장’ 확정 및 공사착수
2004. 3	◦ 시청 앞 광장 명칭 공모, ‘서울광장’으로 확정
2004. 5	◦ 시청 앞 서울광장 개장

참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시청앞 광장안 방안 연구 워크숍(주제발표자료집)』.

서울광장 조성은 이처럼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제안되어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지니는 역사적·사회문화적 상징성과 장소성이 지니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과 행위가 이루어졌던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장이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공의 광장이었다. 시청 앞 광장은 과거 군사적 목적에서부터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공간이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시청 앞 광장은 국가의 중대한 일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던 광장이었다. 즉 시청 앞 광장은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공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곳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조성되었던 광장이었다(이정은, 2003:26).

<표7> 시청 앞 광장의 주요 사건들

조선시대	◦ 반국가 행위를 했거나 이에 관계한 중죄인을 공개 처형
1896년(고종)	◦ 국가 채신의 차원에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조사업’ 추진
1903년	◦ 대안문 앞 고종황제 보호 시위
1945년	◦ 8.15 해방으로 인한 시민들의 행렬
1987년	◦ 6.10 민주화 운동
2002년	◦ 월드컵 거리응원전

출처> 이정은(2003), “서울 문화 시민광장 조성계획 및 설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26.

둘째, 시청 앞 광장은 지리적·공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중심공간이다. 시청 앞 광장은 북측의 북악산, 남측으로 남산, 동측으로는 용마산, 서측으로는 안산에 둘러싸여져 위요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청 앞 광장은 행정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서울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서울 시청이라는 주요 공공시설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나 명동 등과 같은 주요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유입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셋째, 시청 일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한 문화적·역사적 장소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세종로를 기점으로 정동극장, 세실극장,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로댕 갤러리 등의 전시·문화시설이 풍부하다. 덕수궁, 원구단 등과 같은 문화재 역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덕수궁의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문장 교대식’이나 덕수궁의 문화 이벤트 및 전시 활동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호텔, 프

라자 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조선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이 입지하여 관광 문화지역으로서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8> 시청 앞 광장 일대 분석의 종합 및 잠재력

구분	항목	분석종합 및 잠재력
사회성	광장형성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6년 도시개조사업으로 현재의 가로구조 갖춤 ◦ 3.1운동, 8.15해방, 민주화운동 등 국가적 사건의 중심 ◦ 다양한 시민들의 시위 및 의견표출의 장 ◦ 올림픽, 월드컵 통해 시민축제의 마당으로 자리 잡음
장소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부 중앙에 위치 ◦ 행정적 · 상업적 중심공간으로 유동인구 많음 ◦ 행사 개최 시 큰 파급효과, 서울축제의 장소로 적합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교동, 저동, 북창동 등 보행밀집지역과 연계 ◦ 다양한 행위의 수용이 가능, 도시마케팅에 유리
역사성	역사 ·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구단, 덕수궁 등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들 입지 ◦ 세종문화회관, 정동극장, 서울시립미술관 등 전시 · 문화시설이 인접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자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등 숙박시설 산재

이처럼 시청 앞 광장은 국가적 상징성 및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시청 앞 광장은 교통량 집분산 지점으로 인간 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교통 광장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광장에 내포된 장소적 의미가 형태적 · 기능적 측면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광장은 위와 같은 사회성, 장소성, 역사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고 활성화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조성 계획되었다.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광장 조성 배경 및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도시로의 전환, 서울

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 구현, 도시의 활력과 도시 삶의 매력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서울특별시, 2003:1). 우선,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역사문화탐방로’, ‘청계천 복원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문화벨트를 형성하여 보행중심·인간중심의 도시공간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광장을 인간중심의 시민광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광장은 서울의 도시 이미지 증진을 위한 랜드마크로써 요구되었다. 서울광장이 지니는 공간적·역사적 상징성을 최대한 살려 서울의 대표적인 가로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은 서울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표9> 서울광장 추진 배경 및 목적

목표	세 부 목 표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문화벨트 형성 ◦ 보행중심·인간중심 도시 공간 추진 ➡ 장소성 강화
서울의 도시이미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상징성을 문화인프라로 구축 ◦ 랜드마크 도심광장 조성 ➡ 장소성 강화 역사성 강화
도시 활력 증진, 삶의 매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로 고립·단절되었던 문화자원 연계 ◦ 시민중심의 보행광장·문화광장 조성 ◦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류·휴식의 공간 ➡ 사회성 강화

참고> 서울특별시(2003),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연구』.

요컨대,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서, 동시에 비워진 공간으로서 조성 계획되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기본 구상안으로서 3가지의 계획안을 전제한 바 있다. 고립성 극복, 주변 문화자원의 연계, 가변적 공간구성

이 바로 그것이다.

고립성 극복은 기존 차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시청 앞 광장은 4면이 차로에 면하여 고립되어 있고, 일부 주변 건물만이 광장을 향하여 전면성을 갖고 있어 산만하며, 이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제외하고는 이벤트 형성이 어렵다. 따라서 공간의 위요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장을 계획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가 제안되었다. 광장주변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광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이나 시청 등과 같은 공공 공간의 개방성을 높여 실질적인 광장으로서 소통성과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가변적 공간구성은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의 조성을 의미한다.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행사시에는 축제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공 옥외 공간으로 계획하여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것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나 문화관련 공연시 무대설치 위치 및 관중석 배치 등을 고려하여 광장 내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설치, 여백 있는 공간구성이 계획·제안되었다(서울특별시, 2003:99).

<표10> 시청 앞 광장의 기본 구성안

계획의 전제	광장의 유형	
고립성 극복	중심광장 ➡	장소성 강화
주변 문화자원 연계	상징광장 ➡	역사성 강화
가변적 공간구성	비워진 광장 ➡	사회성 강화

3.3. 서울광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서울광장은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구성안에 따라,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으로 그리고 비워진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울광장 조성에는 도시계획·조형, 역사·문화, 교통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원 등 3개 분야 16명의 위원이 기본계획부터 참여했으며,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서울광장은 총 3천 800평 규모의 잔디광장으로 잔디가 깔린 곳이 1900평, 돌로 포장된 주변부가 2000여 평에 이른다. 타원형 잔디광장 둘레 보행 인구가 많은 바깥쪽은 화북석을 깔고 원구단 공원과 덕수궁 양쪽 이벤트 공간은 잔디블록으로 조성되었다. 돌 포장 부분에는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해 대규모 문화 행사 등이 연중 가능토록 배려했으며, 빗물이 잔디 광장 지하에 저장돼 스프링클러에 활용 되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공법도 도입되었다. 광장의 전체 형상은 타원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화합을 상징하는 대청마루에 평화를 상징하는 둥근 보름달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형성화한 것이다.

또한 광장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해 ‘비어있는’ 공간, 즉 도시의 여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걷고 휴식하거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이에 조명이나 분수대 등과 같은 시설물의 규모 역시 최소화하였다. 타원형 잔디광장 둘레에는 48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었는데, 공간을 차지하는 탑형 대신 바닥조명을 설치하였고, 광장과 차도 경계석 측면에 벽부등을 심어 야경을 고려하였다. 지난 63년부터 40여년간 시청 앞을 지켜왔던 분수대 역시 철거되었다. 대신 광장 남서쪽 덕수궁 정문 앞에 121개의 물길에 치솟는 오색바닥분수가 들어섰다. 이 분수는 20m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으며, 35가지의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고, 녹·청색 등 7가지 수중 조명등으로 더욱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양새를 갖추었다. 분수대쪽, 지하철 환기구와 광장 남서쪽 덕수궁방향에는 눈썹

목 등 키 작은 수목을 심어 미관과 여백의미를 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시설 및 조형보다 광장 구성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외부 주변 환경이다. 특히 기존에 도로에 의해 차단되어 발생했던 광장의 고립성 극복은 광장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시청 정문 앞을 보행구간과 직접 연결하고 나머지 3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광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서울광장에서 덕수궁, 프라자호텔, 무교동길, 을지로 등 사방으로 난 횡단보도는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역 주변을 지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인간 중심의 보행구간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광화문에서 시청, 숭례문, 서울역 구간에 6개의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보도를 대폭 확장하는 서울 중심부의 보행벨트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도심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김창영, 2005). 이러한 보행벨트는 정동극장과 서울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경복궁, 덕수궁 등 문화재를 연결하는 문화벨트 형성으로 이어져 서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광장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7~60일 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광장조성목적에 위배될 경우, 광장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문화·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해 서울광장이 이용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한편, 서울광장은 제2회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기점으로 광장 음악회, 빛의 축제, 퍼레이드, 왕궁수문장교대행렬, 이동미술관, 가족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상설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행사는 서울광장이 문화광장이자 열린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민집회 및 캠페인 역시 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 서울광장에서는 5월 개장 이래 12월 스के이트장 개장 전까지 5월에서 12월 사이 약 8월동안, 전시회 11회,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87회, 각종 기념행사 23회, 집회 및 캠페인 18회, 그리고 기타 행사 10회를 포함하여 총 149회의 크고 작은 행사 및 프로그램이 열렸다. 그간 개최된 문화예술행사, 기념행사 및 집회 현황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5월에서 11월 사이 서울광장에서는 약 11회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복지단체,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사 및 개인 예술가들 등 다양한 주체가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전시회의 주제 역시 비교적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표11> 서울광장 전시회 개최 현황

일시(월)	행사명	주최 단체
5	가난에 갇힌 아이들 사진 전시	중앙일보
6	2004환경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서울시
	유기농데이, 친환경 농산물 전시	유기농녹색가게 “신시”
7	가로환경 시범가로 표준디자인(안) 전시	서울시
	강진 고려청자 물레시연	전남 강진군청
9~10	마르코 폴로-동서의 문명과 환경사진전	환경재단그린페스티벌 조직위원회
10	야생화 사진 및 야생화 작품 전시	(주)백산기획
	국제청소년연합 세계대회 사진전시회	국제청소년연합
11	조세현작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진전	대한사회복지회
	이정수 석조각 개인전	이정수 조형연구소
	장애인의 일상생활·재활모습 사진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둘째, 서울광장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이다. 열린 광장 혹은 비워진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서울광장의 의의에 걸맞게 5월 하이 서울 페

스티벌을 기점으로 6월 20회, 7월~8월 14회, 9월 20회, 10월 18회, 11월 14회로 총 87회의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가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이 서울광장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실시하고 있다. 그 까닭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을 비롯하여 매달 풍부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12> 서울광장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개최 현황

일시(월)	행사명	주최 단체
5	H! Seoul 페스티벌 축제 행사	서울시
6	민주주의 시민축제 6.10 행진 시민난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겨레신문사
	금관5중주(Body brass 앙상블)	서울문화재단
	정오의 팝콘서트(모던팝오케스트라)	서울문화재단
	락발라드 공연 (May 공연)	서울문화재단
	퓨전 클래식 금관5중주(Booni)	서울문화재단
	퍼레이드(시범광여정교육고 고적대)	서울문화재단
	힙합공연 (일루션&다피스)	서울문화재단
	아카펠라 공연(5인조 보이쳐 공연)	서울문화재단
	브라스 공연(12인조 재즈 공연)	서울문화재단
	포크&모던 락 밴드공연(well)	서울문화재단
	탱고댄스(디아나 /니꼬)	서울문화재단
	퍼레이드(경찰악대 70명)	서울문화재단
	힙합공연(H.O.N&케이케이)	서울문화재단
	퍼포먼스 공연(아리 코리아)	서울문화재단
	에밀레 공연	서울문화재단
	락밴드공연(흰우유밴드)	서울문화재단
	살사밴드 (Esencia)	서울문화재단
	이동광장 공연(체육청소년과)	서울문화재단
	안데스 음악 공연(위냐이)	서울문화재단
	장사익 공연	서울문화재단
7	엄태경/줄라이 공연	서울문화재단
	퍼니밴드 공연	서울문화재단
	페이스/지요 공연	서울문화재단
	살사밴드 메디카 공연	서울문화재단
	길곳 솔로이스츠 공연	서울문화재단

일시(월)	행사명	주최 단체
7	여성일자리 갖기 페스티벌	서울시
	로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마당	로이(Roight of Youth)
	언더뉴욕 서울공연	언더뉴욕/서울문화재단
	애니메이션 상영 “망치”	(주)캐릭터 플랜
7, 8	만화 애니메이션 상영, 이벤트(전시 등)	서울시/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조직위원회
7, 8	한여름밤 서울광장 축제	서울시/세종문화회관
8	버클리 친구들의 재즈 콘서트	서울문화재단
	커먼그라운드 공연	서울문화재단
	디애플즈 공연	서울문화재단
9	2004 희망이삭줍기	농림부
	청소년 전통예술 한마당	서울시
	2004 원주따뚜의 미니콘서트	(재)원주국제타투
	세계문화오픈2004	세계문화오픈조직위
	May Tree(아카펠라) 공연	서울문화재단
	Hi Seoul (시청 직장인 밴드)-시민 공모	서울문화재단
	라이어밴드 (포크락밴드) 공연	서울문화재단
	목관 5중주 (클래식)	서울문화재단
	페이스(3인조 보컬팀)	서울문화재단
	City Rock(시청 직장인 밴드)-시민 공모	서울문화재단
	야메스튜디오(모던락)	서울문화재단
	알렉스밴드 (퓨전재즈)	서울문화재단
	알핀로제(요들송 공연)	서울문화재단
	레이지 먼데이-재즈공연	서울문화재단
	프레쉬 펀치 공연	서울문화재단
	바람소리(민속음악-팬플룻)	서울문화재단
	일렉쿠키(3인조 퓨전 재즈 공연)-시민공모	서울문화재단
	과르텟엑스(4인조 현악 공연)-시민공모	서울문화재단
	아수라 (크로스오버)	서울문화재단
	몽라(뉴에이지 공연)-시민공모	서울문화재단
10	페루 전통음악과 라틴 페스티벌	페루대사관
	제2회 대한민국 여성축제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시
	청소년 게임음악회	서울시
	본 트럼퍼 중창단 초청협연	한국여성재단
	영국 버킹검궁 왕실근위병 밴드연주	서울시
	2004 서울시 재활용축제	서울시
	서울사랑 걸쳐퍼레이드	서울시
	2004 추계서울컬렉션	서울시
	오션로드 공연	서울문화재단

일시(월)	행사명	주최 단체
10	목관5중주 공연	서울문화재단
	엄태경 공연	서울문화재단
	Link 공연	서울문화재단
	야메 스튜디오 공연	서울문화재단
	에바 (전자 현악 4중주)	서울문화재단
	양성평등을 위한 창작지원활동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
	잉카 사마야 공연	서울문화재단
	프레쉬펀치 공연	서울문화재단
11	한국대학생응원단협회공연	서울시
	제1회 세계청소년 문화예술제	한국향토문화진흥회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세밴디(SEB&D)"	서울문화재단
	4인조 락밴드 "러너스하이"	서울문화재단
	팝 락 밴드 "소울엔진"	서울문화재단
	서울광장축제 — 시민공모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락밴드 " 걸"	서울문화재단
	락밴드 "미스터 핑키"	서울문화재단
	락큰롤&트위스트 " 오브라더스"	서울문화재단
	락밴드 "라이어 밴드"	서울문화재단
	락밴드 "피비스"	서울문화재단
	재즈밴드 "레인 독"	서울문화재단
	전피노키오 보컬 " 강주원"	서울문화재단
	"여행스케치" 공연	서울문화재단

위와 같이 서울광장에서는 매 월 풍성한 축제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상의 행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제가 17회, 클래식공연이 10회, 락공연 19회, 재즈 및 팝 공연이 10회, 댄스공연 3회, 퍼레이드 및 퍼포먼스가 6회, 대중음악 공연이 15회, 그리고 민속음악 공연이 4회, 기타 문화행사 4회가 개최되었다. 전체 행사에서 락공연, 대중음악공연, 재즈공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속음악공연은 4회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문화·예술 공연 중 약 10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사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가 되어 이루어졌다. 공연단의 성격은 대부분 문화·예술 전문 집단이었고, 단 6회 정도만 서울문화재단이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순수 시민참가집단이었다.

셋째, 서울광장에서는 각종 기념행사 및 대회 역시 개최되었다. 총 23회의 각종 기념행사 및 대회에서 서울시 주최 행사가 9회, 시민단체 행사가 7회, 종교단체 행사가 4회 개최되었다. 행사의 성격은 기념일 행사, 추모식, 발대식 및 해단식 등에 이른다.

<표13> 서울광장 각종 기념행사 개최 현황

일시(월)	행사명	주최 단체
5	부처님 오신날 봉축등탑 점등식 및 전시	대한불교 조계종
6	군·경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경인권대책위
	교통방송 개국14주년 특집 “서울광장 오픈 스튜디오”	교통방송
	2002 월드컵축구개최 2주년 기념 특집방송 “열린 음악회”	KBS
	대한민국 문화원정대 발대식	세계탐험협회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 서울성화봉송	서울시
7	제1회 농아대학생 국토대장정 해단식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대한민국 문화원정대 “동해안 민통선 도보대장정” 해단식	세계탐험협회
8	8.15행사 기념연설 및 국민축제	독립신문
	해방 59주년 맞이 여성평화 주간행사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에너지의 날 행사	에너지시민연대
9	자석식풍력발전기 가동식	발명문화복지원
	서울시 인터넷 방송 오픈 기념행사	서울시
	“책읽는 서울” 개막식 및 부대행사	서울문화재단
	서울삼성썬더스 농구단 팬클럽발대식	서울시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정식	서울시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결단식	서울시
10	참여연대 창립10주년 기념 행사	참여연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
11	KAL 858기 실종사건17주기 추모제	천주교인권위원회
12	사랑의 체감온도탑 온도올리기 시연행사	서울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서울시
12~2	성탄절 및 새해맞이 장식물 설치 및 점등식	(주)기독교 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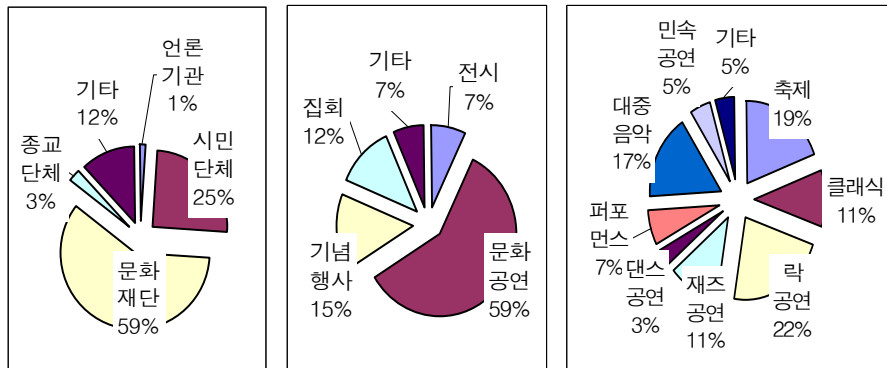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캠페인 및 집회현황이다. 5월에서 12월 사이 서울광장에서는 5회의 캠페인과 13회의 집회가 열렸고, 대부분 행사 주최는 시민사회단체이다. 그 밖에도 서울광장에서는 TV 촬영,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이후부터는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표14> 서울광장 캠페인 및 집회 현황

일시(월)	행사명	단체명
5	노숙인 의료구호비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연대 한마당	노숙인의료구호비문제 완전해결을위한공동행동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야간집회	개약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살리기 위한 6.25 대 각성 비상구국기도회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 반대 범시민 쉼기 대회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수도이전반대 시민연합
8	8.15행사 기념연설 및 국민축제	독립신문
1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120여개 종교단체와 보수,우익단체
	유방암예방을 위한 핑크불빛 밝히기	서울시/대한암협회
1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민중대회	전국민중연대
	쌀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전국농민회총연합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촉구 350만 농민대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보험인 총궐기대회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불법광고물 전시캠페인	서울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드라이버캠페인	(주)프레인닷컴
	새 생명 살리기 100만명 헌혈운동	새생명복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주)한국야쿠르트
12	미술학원에 대한 저소득층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집회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회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이상과 같이 서울광장에서는 개최된 여러 다양한 행사를, 내용별로 그리고 주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내용별, 주최별 서울광장 프로그램 개최 현황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및 프로그램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반이 넘는 59%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기념행사가 15%, 캠페인 및 집회가 12%, 전시회가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락 공연이 전체 문화행사 중 2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축제가 19%, 대중음악 콘서트가 17%로 대체로 대중문화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최별 서울광장의 프로그램 진행 현황인데, 전체 행사를 주최별로 나누어 봤을 때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행사가 전체 행사의 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시민 혹은 시민단체로 25%, 그리고 종교단체가 3%, 언론기관이 1%, 기타 복지기관 및 상업기업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행사 유형별 및 주최별 편중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3.4. 서울광장의 일반적 이용현황 및 문제점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잔디광장과 여타의 시설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서울광장을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광장이 개장한 ‘하이 서울 페스티벌’ 기간에만 약 4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을 찾았으며, 개장 10일 만에 약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했다. 또한 서울광장이 개장한 100일째였던 8월 10일을 기점으로 광장 이용객이 439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평균 4만 7천명이 서울광장을 이용한 셈이며, 특히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의 분수대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도 역시 서울광장은 많은 이용객으로 붐볐는데, 지난해 12월 24일에 개장한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개장 45일째 1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 이용객은 평일 평균 2천 118명, 주말 3천 170명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이 71.6%, 경기도민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영, 2005).

그러나 이처럼 많은 시민이 서울광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이 개장한 이래 여타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서울광장의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이용객이 서울광장에 집중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광장 주변의 호텔 및 상점가의 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특히 여름철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광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부분에 관한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지난 여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분수대 위생문제와 환경대기오염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불어 광장의 안전문제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대형화분을 설치해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3면이 차도와 접해있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서울광장의 운영상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제기는 많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장 사용자는 1㎡당 1시간에 10원의 사용료를 시에 지급하고, 잔디 및 시설물이 손상됐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해 집회나 시위 공간으로 광장이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광장이용방침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잔디광장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문제도 서울광장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잔디 훼손을 우려한 출입통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잔디휴일, 겨울철 잔디광장 출입통제 등이 광장 이용 시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광장 유지·보수비의 문제도 지적사항 중 하나이다. 그간에 제기되었던 서울광장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광장 시설: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 편의시설 부족
- 위생 및 관리: 분수대 및 환경대기 오염 문제, 안전사고 대비 미비
- 운영: ‘서울광장조례’에 따른 집회 및 대형행사 제한 문제
- 유지 및 보수: 잔디 휴일제, 잔디 유지·보수비용 문제

4.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 4.1.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4.2. 서울 광장의 이용현황
- 4.3. 서울 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 4.4. 소결

4.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4.1.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광장은 5월 개장 이래, 여름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4만명, 겨울철 이용객은 약 3천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및 행사 역시 약 150회에 달한다. 5월에서 12월까지 한 달 평균 약 19회 정도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수치는 2일에 한번 꼴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울광장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도심 속 중심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이 안정화되는 만큼 서울광장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문화적 의의 역시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문화공간이자 상징공간인 서울광장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서울시의 유의미한 공공 공간으로서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역사성과 장소성, 사회성을 강화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이 서울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광장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하며,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 서울 이미지에 미친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총 9개의

문항을, 서울 광장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으로 총 25개의 문항을, 서울 광장 이미지에 관한 질문으로 총 5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이나 나이 등 총 7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1주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 대상자는 104명으로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이 누락된 2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1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45명(44.1%)은 남성이었으며, 57명(55.9%)의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 중 10대가 29명(28.4%), 20대가 45명(44.1%), 30대가 22명(21.6%), 40대 이상이 6명(5.9%)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자	45	44.1%
	여자	57	55.9%
Total		102	100.0%
연령대	10대	29	28.4%
	20대	45	44.1%
	30대	22	21.6%
	40대	6	5.9%
Total		1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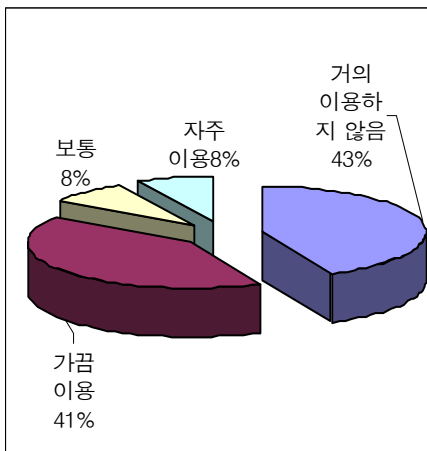
4.2. 서울광장 이용현황

서울광장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빈도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1%의 응답자가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지나지 않아 서울광장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라는 것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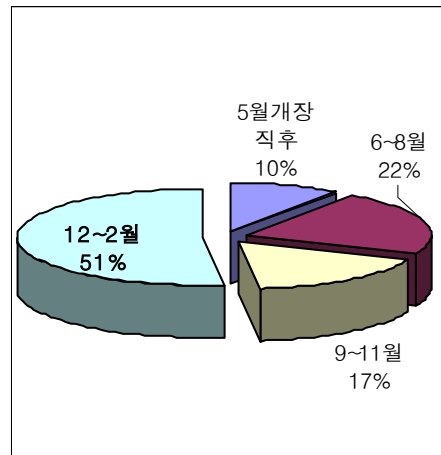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서울광장 이용률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 까닭은 겨울철 서울광장을 찾는 이들이 주로 스케이트장 이용자들이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름·가을 시즌에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과 겨울철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따라서 일상적인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이 계절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장 이용 계절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계절에 관한 질문에서 51%가 겨울철에 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22%가 6월~8월, 17%가 9월~11월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림5> 서울광장 이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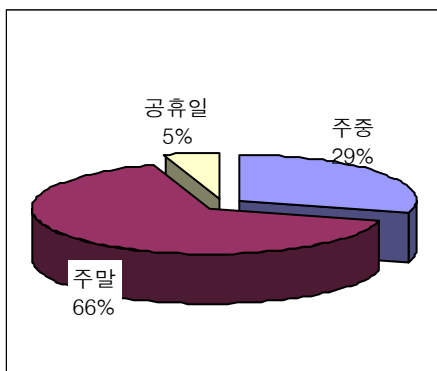
<그림6> 서울광장 이용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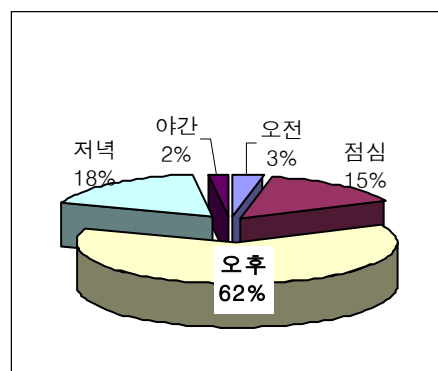
연령별로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20,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울광장을 자주 이용했으며 10대는 주로 겨울철에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주 이용층이 10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광장 이용 요일 및 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말 이용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중이 29%, 공휴일이 5%로 나타나 평일 이용객 보다는 주말 이용객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시간대는 오후 2시~6시 이용이 62%로 1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녁 6시~8시가 18%, 점심시간대인 12시~2시가 15%, 오전 9시~12시가 3%, 그리고 야간 8시~12시가 2%로 나타났다. 퇴근 혹은 하교 이후에 서울광장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7> 서울광장 이용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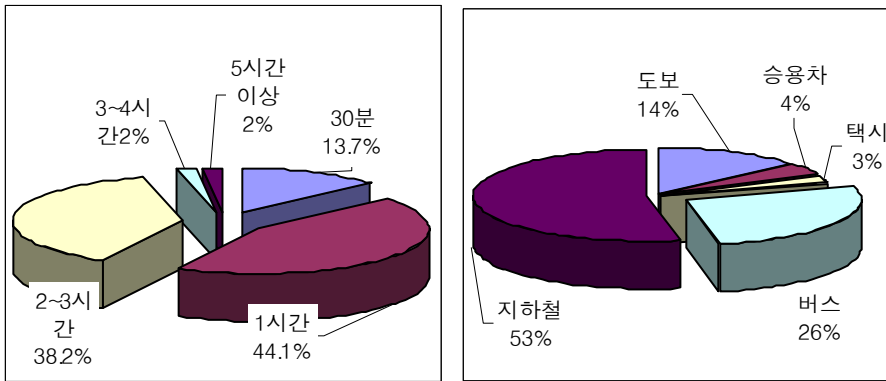


<그림8> 서울광장 이용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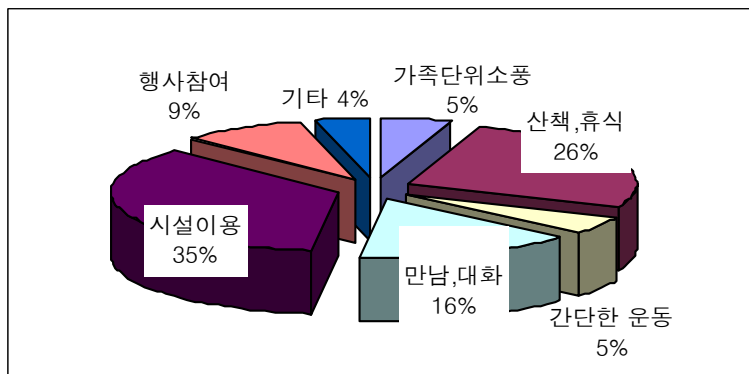
광장 이용 시 머무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1시간정도를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이 38.2%, 30분이 13.7%로 나타나 3시간 이하로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3시간 이용객이 38.2%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광장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르는 통로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장 이용 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버스가 26%, 도보가 14%, 승용차 4%, 택시가 3%로, 대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9> 서울광장에 머무는 시간 <그림10> 이용하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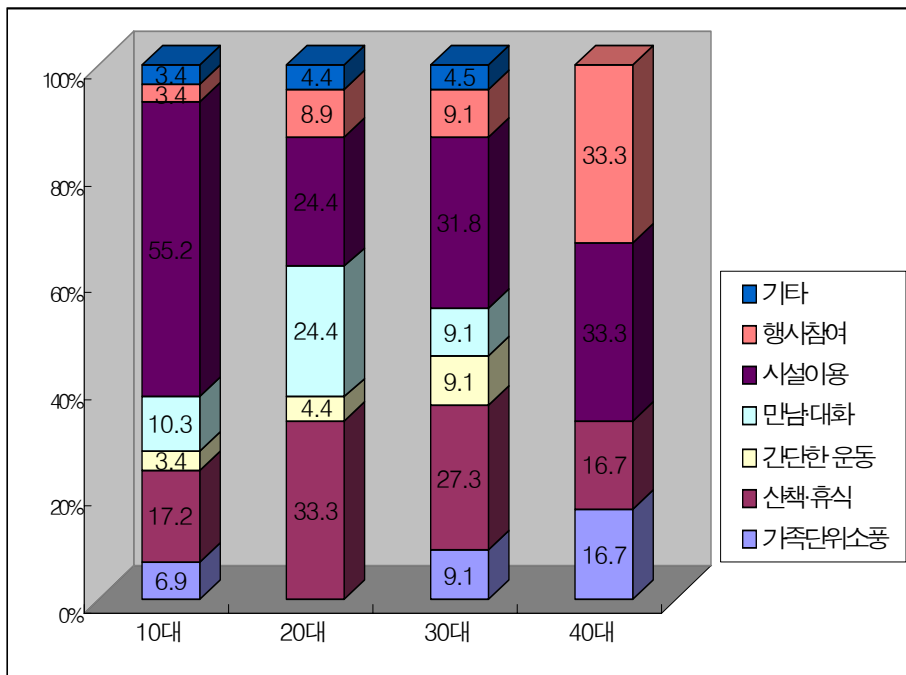
다음으로 서울광장 이용 목적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이용이라고 응답했다.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겨울철 서울광장 방문객의 주를 이루면서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26%,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6%,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9%, 간단한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가족 단위 소풍을 위해서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각각 5%로 나타났다.

<그림11> 서울광장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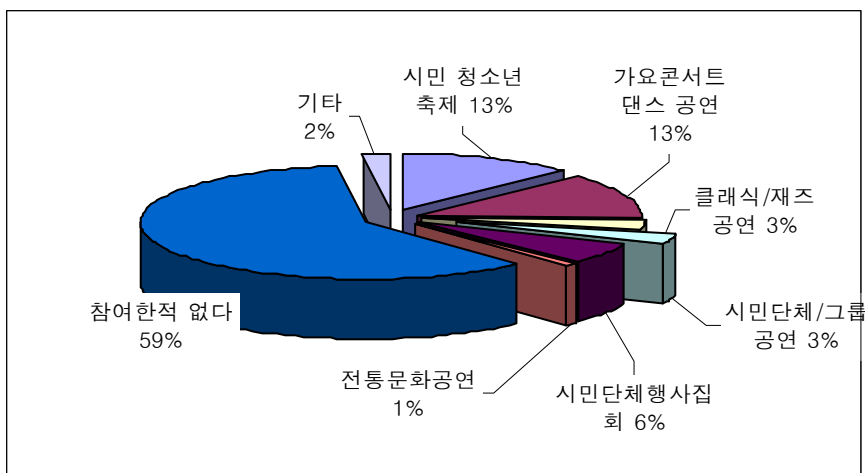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목적에 관한 응답에서 드러나는 연령별 차이이다. 10대의 경우 과반수를 넘는 55.2%가 시설이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3.3%를 차지했다. 30대는 시설이용과 산책·휴식 모두를 광장이용의 주목적으로 꼽았는데, 자녀의 스케이트장 이용을 위해 동반한 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10대 3.4%, 20대 8.9%, 30대 9.1%, 40대 33.3%가 광장이용 목적 중 행사참여를 위해 광장을 찾는다고 답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다른 목적보다 행사 참여의 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12> 연령별 서울광장 이용목적



그렇다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중가요콘서트 및 댄스 공연과 시민·청소년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3%에 해당해 대중문화공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10대의 경우, 다른 행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축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에는 축제와 시민단체 집회에, 30대는 대중가요콘서트에, 40대는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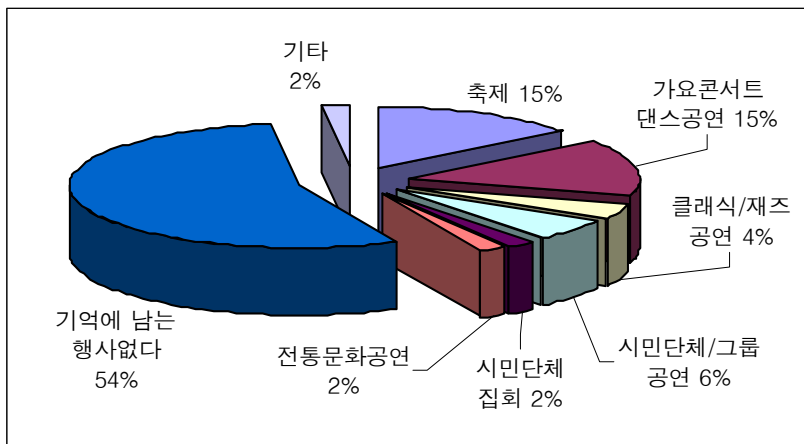
<그림13> 서울광장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현황



또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앞선 응답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30%가 시민·청소년 축제와 대중가요 콘서트를 꼽았으며, 그 밖에 시민단체 및 시민그룹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6%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행사가 없다고 응답해, 서울광장에

서 개최되었던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울광장은 계절별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14> 가장 인상 깊은 서울광장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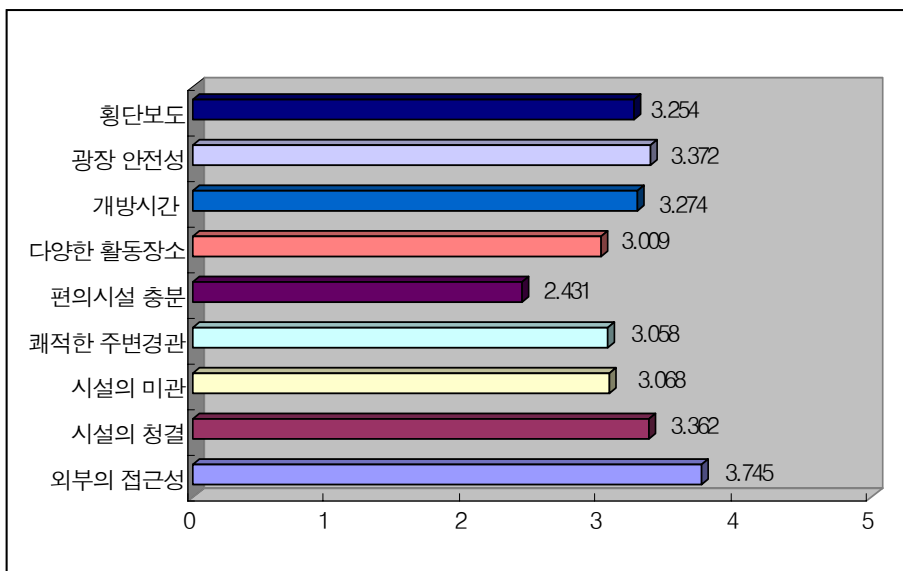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 설문 대상이었던 서울광장 겨울철 이용객들은 스케이트장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말에 주로 2시~6시 사이 오후 시간대에 1시간 혹은 2~3시간 정도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책이나 휴식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상당부분 존재했는데, 10대의 대부분이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서울광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답한 반면 20,30대는 산책·휴식 혹은 만남·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 동안 서울광장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규모와 양을 고려해 볼 때,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축제나 대중콘서트를 제외하고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서울 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서울광장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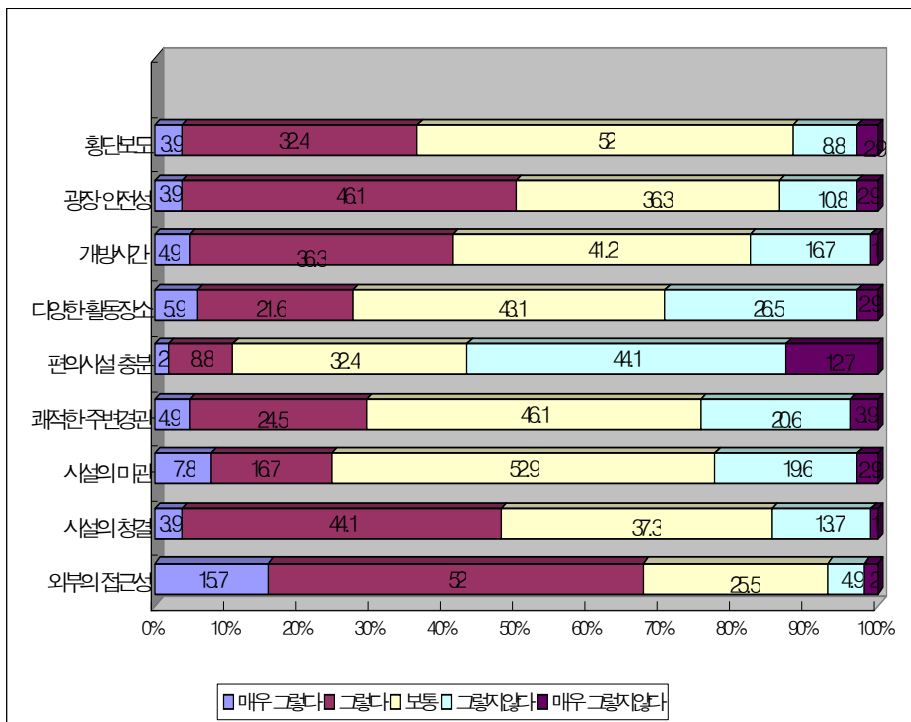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 및 횡단보도를 비롯한 광장への 접근성, 광장의 관리 및 안전문제, 광장시설의 미관, 편의시설, 광장시설의 다양성, 개방시간, 광장주변 경관에 관한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종합, 광장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74의 평균 만족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즉 이용객들은 광장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외부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3.7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중간수준에도 못 미치는 2.431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15> 광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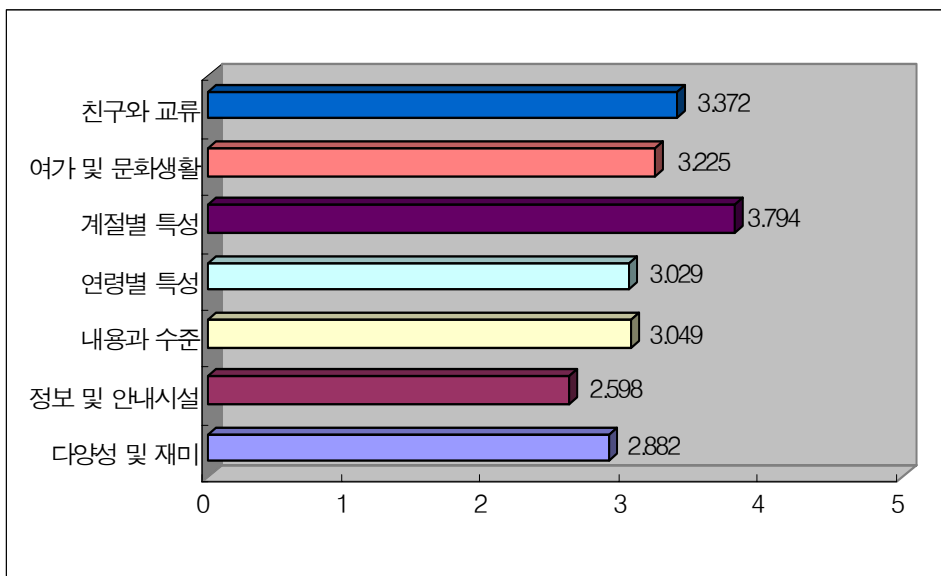
그러나 광장 이용객들의 응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언급한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광장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10.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56.8%에 달하였다. 또한 광장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이용객들도 29.4%나 존재했다. 광장의 개방시간이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서도, 개방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7%, 광장시설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7%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접근성 > 안전성 > 시설 청결 > 개방시간 > 횡단보도 및 동선 > 시설의 미관 > 쾌적한 주변 경관 > 다양한 활동장소 > 편의시설 항목 순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16> 광장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흥미, 프로그램 관련 정보 및 안내시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 계절별·연령별 프로그램의 적절성, 광장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종합, 광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135의 평균 만족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광장 이용객들은 광장 시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장의 계절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794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 및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598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광장의 문화적 혹은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225와 3.372로 사회·문화적 광장으로서 서울광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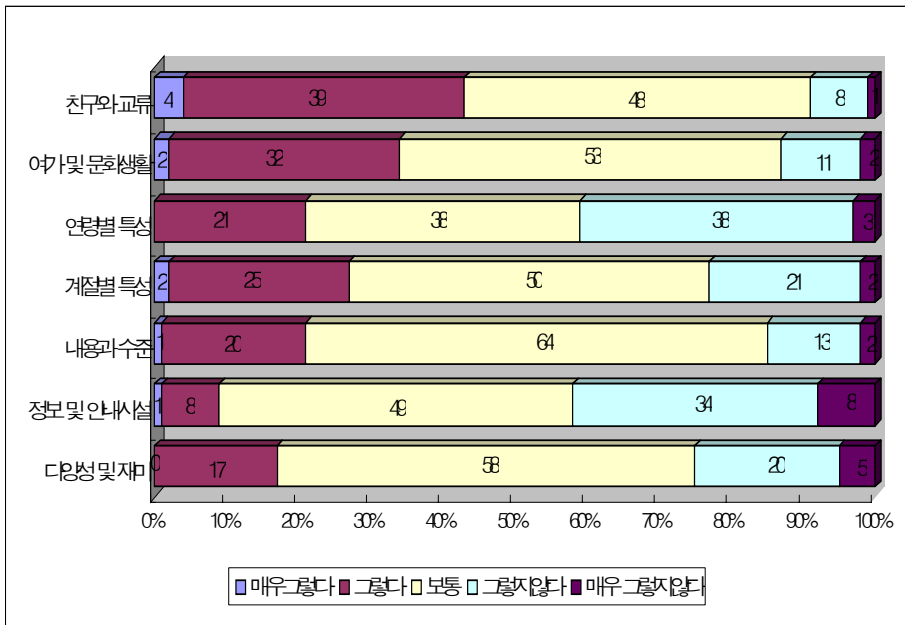
<그림17> 광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



이와 같은 만족도를 이용객들의 응답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광장 프로그램이 계절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이 미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연령별 특성에 맞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1%의 이용객이, 내용과 수준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역시 21%의 이용객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안내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 존재했다. 광장 프로그램이 친구와의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42%, 여가 및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34%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뿐 그다지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 정보 및 안내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42%로 상당부분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흥미의 부분에서 25%의 응답자가, 계절별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23%의 응답자가,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에서도 15%의 응답자가 불만족을 드러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자신의 이웃 혹은 친구와의 교류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장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객들은 계절별 프로그램 > 내용과 수준 > 연령별 프로그램 > 다양성 및 재미 > 정보 및 안내시설과 관련한 항목 순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18> 광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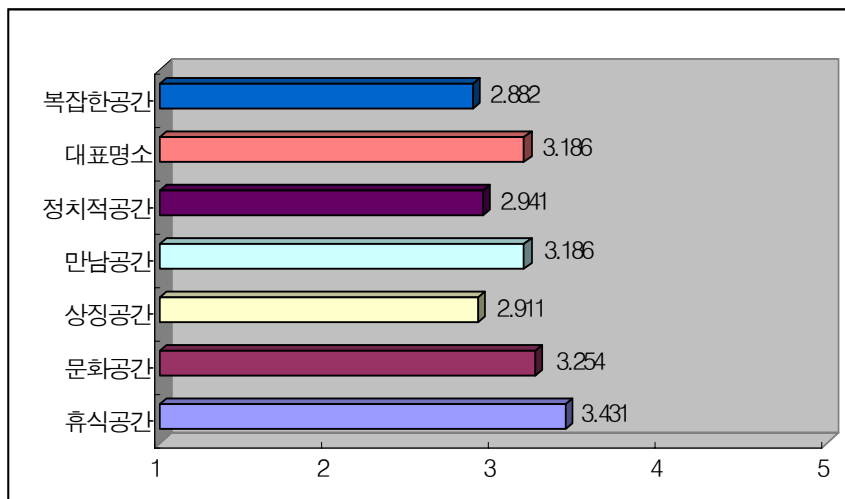


한편,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 부분은 서울광장의 애초 조성목적 및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서울광장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그리고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조성 계획되었다. 서울광장은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축제 및 문화예술의 공간이며, 서울의 상징공간이고, 또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접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울광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염두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광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이미지 역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색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가 3.43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축제 및 문화·예술 공간(3.254)이자,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만남의 공간(3.186)이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3.186)로써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도 높았

다. 반면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공론의 장이라는 인식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9> 서울광장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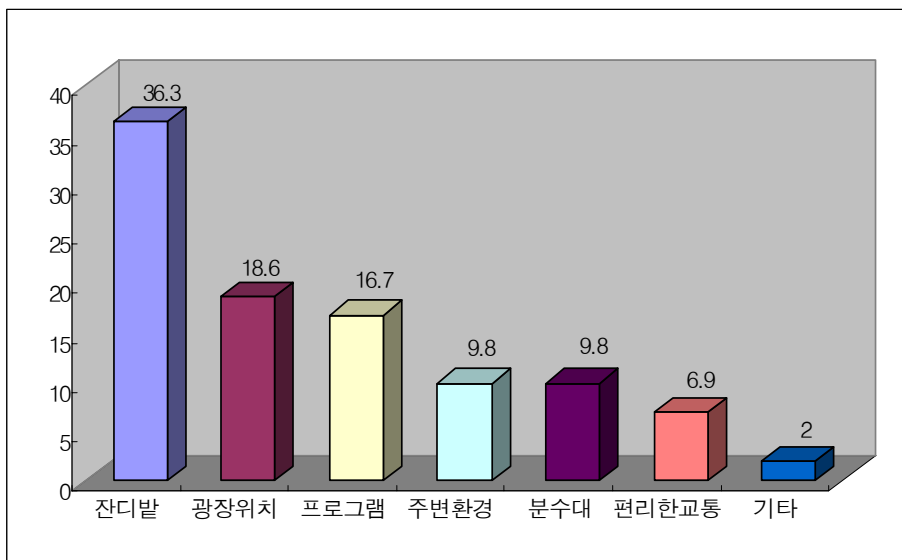


또한 서울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이용객은 3%,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이용객은 43%,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용객은 8%, 보통은 46%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잔디밭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광장의 위치(18.6%), 광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16.7%), 광장의 주변 환경(9.8%), 분수대(9.8%),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6.9%)의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의 요소를 꼽았다. 도심 속 잔디광장이라는 서울광장의 특징적 요소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광장의 주변 환경이나 분수대, 교통 관련 부분은 그다지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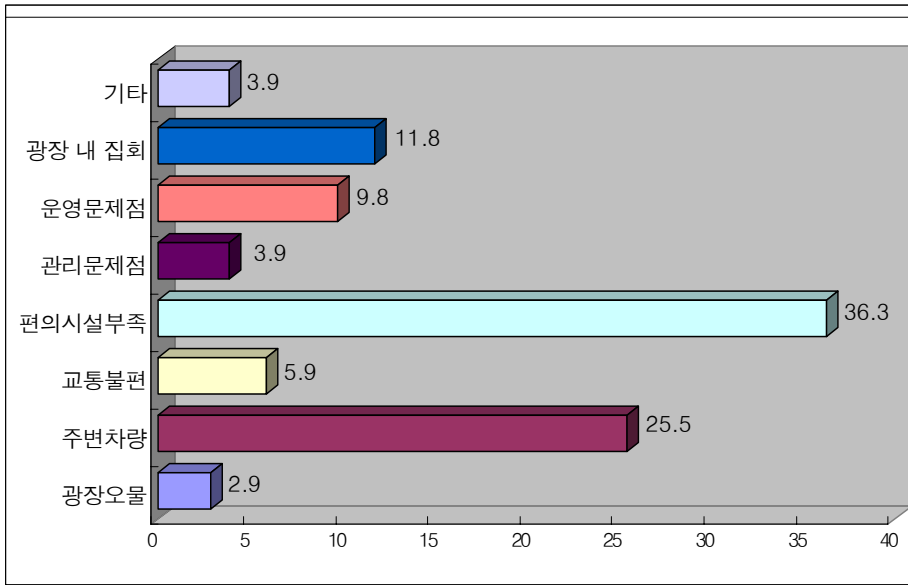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서울광장의 상징적인 시설물인 분수대가 광장의 특정 이미지 형성에 그다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겨울철이라는 계절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20> 서울광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반면에 서울광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앞서서도 역시 제기되었듯이 광장 내 편의시설 부족을 36.2%의 이용객이 가장 큰 부정적 이미지의 요소로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15.5%) 역시 서울광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었다. 이 두 문제는 다른 요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지적되는 사항으로 서울광장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 밖에 광장 내 집회 및 시위가 11.8%, 이용제한이나 사용료부가 등과 같은 광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9.8%, 교통의 불편함 5.9%, 잔디휴일 등과 같은 광장 관리의 문제점이 3.9% 비율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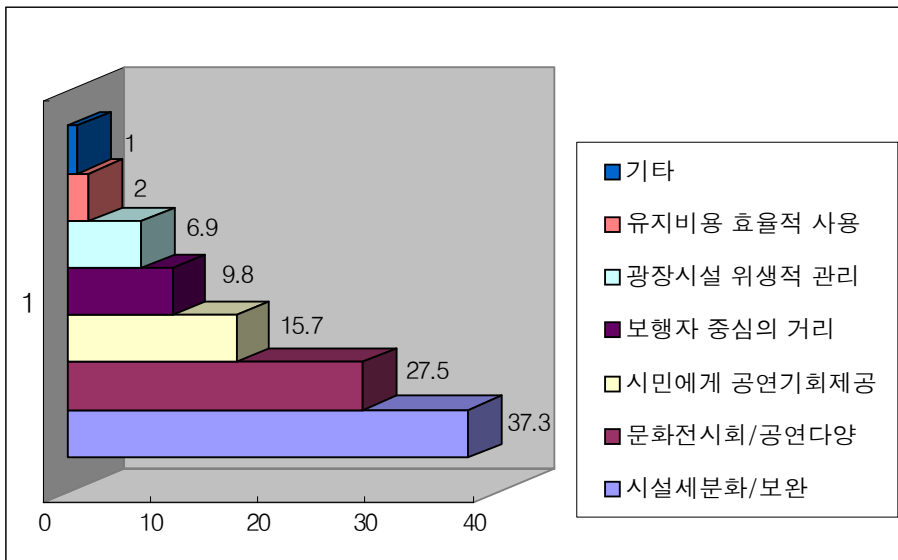
<그림21> 서울광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바람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광장시설이 보다 세분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37.3%로 가장 많았고, 문화전시회 및 공연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5%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광장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광장 내 화장실, 식수대, 벤치,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전시회 및 공연의 다양화를 개선점으로 꼽았다는 것인데, 그간 진행되어온 광장 내 문화행사 혹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횟수를 생각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지금껏 진행되어온 문화행사가 시민 혹은 이용객들의 욕구와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 그 밖에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대답한 이용객도 15.7%에 달했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광장 주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9.8%, 분수대 등의 광장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9%, 잔디휴일 및 잔디유지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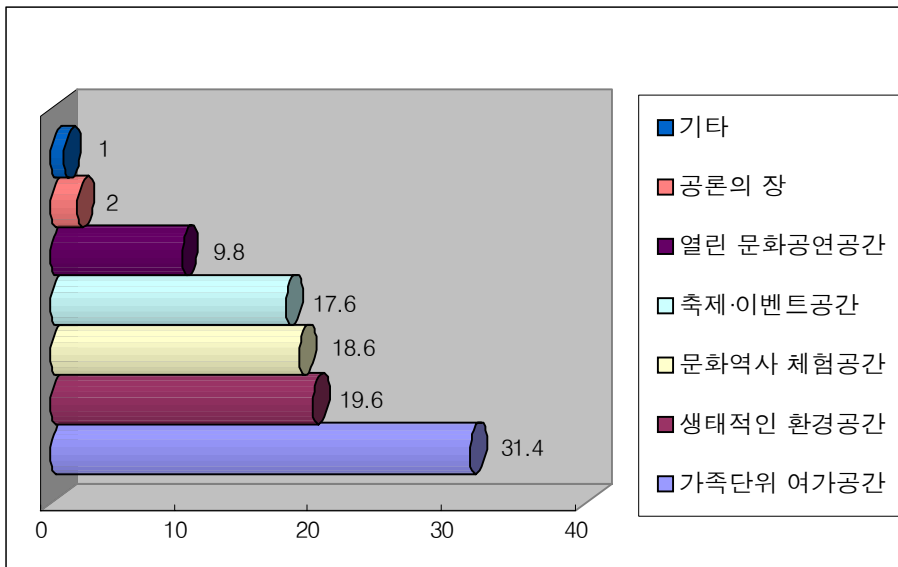
한다는 의견이 2%, 기타의견이 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광장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보안에 관한 욕구와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기회 확대에 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22> 서울광장 시설 및 운영의 개선점



이러한 바람과 욕구는 향후 서울광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용객들의 제안에서도 드러나는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이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19.6%,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문화·역사 체험 공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다양한 문화이벤트나 축제, 야외 전시회 및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청소년 등의 일반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8%,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교류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 존재한다.

<그림23>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향



이 중에서 특히 서울광장이 향후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용객들이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광장에 대한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즉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에서는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반면에,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답하고 있다. 따라서 상징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광장의 이용현황, 이용목적,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현황,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의 요소, 서울광장의 향후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광장 이용현황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광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한다고 답하여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겨울에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나 설문조사가 실시된 계절을 감안해야 하며, 따라서 여름과 가을 이용객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울광장 이용은 계절에 상관없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주로 주말 오후 시간대에 1시간 혹은 2~3시간 이용하고 있다.

둘째, 서울광장의 이용목적은 시설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또한 겨울철 서울광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케이트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용객들이 산책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서 서울광장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셋째,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들 중에서는 시민 및 청소년 축제, 대중가요콘서트 및 댄스공연에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이것이 가장 인상 깊은 행사로 기억되고 있었다.

넷째,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광장시설 및 환경의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광장시설 및 환경의 측면에서는 광장의 접근성이나 안전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광장의 편의시설 부분이나 활동 공간, 주변경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이용객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광장의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역시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광장의 계절별 프로그램(스케이트장 운영)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반면 행사 관련 정보 및 안내시설, 광장의 연령별 프로그램에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섯째,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서울광

장을 사색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이자 축제 및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써 서울광장을 인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상징공간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도 낮았다.

여섯째, 서울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의 요소로는 잔디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서울시청 앞에 조성된 광장의 위치, 광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도 긍정적 이미지의 요소로 꼽혔다.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소로는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 역시 부정적 이미지의 요소로 언급되었다.

일곱 번째, 서울광장의 개선점으로는 시설의 세분화 및 보완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전시회 및 공연을 다양화할 것, 시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울광장은 가족단위의 여가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은 이들이 응답했다. 그 밖에 다른 시민들은 생태적인 환경공간으로, 문화역사의 체험공간으로, 축제와 이벤트의 공간으로 서울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5. 결론 및 제언

5. 결론 및 제언

도시 광장은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보장하는 공공 공간인 동시에, 한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공간이다. 따라서 도시 광장은 도시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 경험, 즉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한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광장 역시 그러하다. 시청 앞 광장은 서울시의 역사적 공간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활동이 이루어져왔던 열린 공간이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조성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광장은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이미지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자 조성되었다. 즉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중심공간이자, 상징공간이며, 비워진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서울광장 조성 그 자체로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 조성 이후 그 광장을 채우게 될 실질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다. 광장이 아무리 잘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광장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프로그램이 서울시의 문화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반영하여 서울광장이 공공 환경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해 5월 개장 이래 서울광장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광장 운영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서울광장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항목	내용
시설	◦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 편의시설 부족
관리	◦ 분수대 위생문제 ◦ 대기 오염문제 ◦ 주변도로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대비 미비 ◦ 잔디휴일제 및 잔디 유지·보수비용 문제
프로그램	◦ 문화전시회 및 프로그램·행사의 다양화 부족 ◦ 역사적·전통적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부족 ◦ 연령별 프로그램 마련 미비 ◦ 직접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행사 주최의 편중) ◦ 프로그램 정보 및 안내시설 부족
주변 환경	◦ 주변 경관과 서울광장의 연계성 부족 ◦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으로 인한 혼란
운영	◦ 집회 및 대형행사 제한문제 ◦ 광장운영비 지불 문제
이미지	◦ 시민들의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광장’에 대한 인식 부재 ◦ 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 부재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혹은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의 재배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크게 시설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세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시설 및 관리의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편의시설 부분이다. 산책과 휴식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편의시설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 쓰레

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장 관리에 관한 부분의 개선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광장 관리에 관한 문제 중 분수대 위생이나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부분은 그 문제점이 지적된 후 이미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재식은 관리의 어려움이나 노숙자 증가 등의 문제로 거부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광장 이용객들은 서울광장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으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쾌적하지 못한 주변 환경이 서울광장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광장 주변에 나무를 심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주변경관을 보다 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양한 식재를 선택함으로써 광장 공간의 분할과 세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표16> 광장 시설 및 관리에 관한 개선안

항목	내용	효과
편의시설 제공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 설치	광장이용의 편리성 증대
광장 주변 재식	광장 가로부분과 광장내부에 재식	안전성 보장, 공간 세분화, 광장 주변 환경 개선

한편,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고, 각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대상층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총 150회의 각종 행사 중 문화행사는 87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락 콘서트 및 대중음악 콘서트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주최별로는 서울시 문화재단이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행사내용별, 주최별로 보았을 때 보다 다양

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공모를 통해 공연에 참여한 시민 공연팀은 단 6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위를 유도하고 촉구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원’과 같은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게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별 혹은 월별에 따라 문화행사 및 대상층을 특성화하거나 테마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해볼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문화축제 및 공연을 보다 일상화하거나 청소년 문화주간을 선포하여 서울광장 내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중문화 공연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개최해야 한다. 전통문화예술 공연은 서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전시회는 서울광장이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공연을 확대·개최해야 한다. 시민 공연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광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문화공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 역시 고민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은 광장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다. 광장 내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부터,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광장 내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행사에 관한 일정 및 내용을 소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안내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17> 광장 행사 및 프로그램 개선안

항목	내용	효과
청소년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공연의 정례화 ◦ 청소년 문화행사 및 축제 기간 선포 ◦ 월1회 청소년동아리 공연기회 보장 ◦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문화 활동 보장 ◦ 다양한 연령층 유입 ◦ 광장 프로그램 세분화
전통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문화예술 공연 확대 ◦ 덕수궁과의 연계 고려 ◦ 왕궁수문장 행사 서울광장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광장의 역사성 강화 ◦ 서울광장의 상징성 강화
전시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문화예술 전시회 확대 ◦ 개인 및 시민단체 주최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문화공간 구성 ◦ 일상적인 볼거리 제공
시민공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연팀 적극 발굴 및 육성 ◦ 시민공연팀에게 공연기회 우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직접 참여 ◦ 열린 문화예술공간 조성
안내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내 행사 정보 안내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통해 참여기회 확대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운영 및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을 참된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일이다.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광장’은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광장은 어느 누구의 개별적인 소유물이 아닌 시민 주체 모두의 공공 공간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광장은 ‘공원’과 다르다. 광장의 핵심적인 기능과 의의는, 광장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정치적·문화적 장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광장이 조성·운영·관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광장으로 간주 할 수 없다.

이에 서울광장이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

으로 서울광장의 조성목적 및 운영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광장이다. 이에 그 운영방침에서도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서울광장 이용 자격 및 제한 근거는 명확한 규칙 하에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시민들의 합의된 기준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광장조례안’ 및 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양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요구되며, 합의의 과정이 촉구된다.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 광장 운영안이 아닌 집회나 각종 행사, 문화 활동을 추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말부터 논쟁이 되어왔던 서울광장을 ‘공공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다.

한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각도의 노력 역시 요구된다. 예컨대, 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이 단독적인 주최가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문화시민단체와 청소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공연 및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공연과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광장을 열린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심 속 광장으로서 서울광장은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점점 더 공공 공간이 사라져 가는 도시환경의 딜레마 속에서, 서울광장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광장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공 공간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공간이자 자아 정체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서울의 문화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서, 역사적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John Rennie Short, 이현욱·이부귀 역(2001),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 탐구』, 한울아카데미.

Kevin Lynch, 한영호·정진우 역(2003), 『도시환경디자인』, 광문각.

고성종·고필중(1999), 『도시환경과 개방공간 디자인』, 미진사.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해석)』, 한울.

김철수(2001), 『도시공간의 이해』, 지문당.

니시무라 유키오,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 역(2003),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태림문화사.

도시연대(2004), 「걷고 싶은 도시」, 5·6월호.

문화연대(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지락.

서울문화재단(2004),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자료집 I』.

서울문화재단(2004),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자료집 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시청 앞 광장안 방안연구 워크샵(주제 발표 자료집)」.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서울의 미래를 읽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2003),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서울특별시.

아라이 요시오 외, 김송미·오병태 역(1996), 『도시의 공간과 시간』, 대우출판사.

정근식·이종범 편(2001), 『문화도시 만들기 이론과 구상』, 경인문화사.

2. 논문 및 아티클

- 김성광(1985), “도시 내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2001), “여의도 오픈스페이스 개선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현(2002), “사회적 단절의 극복을 위한 도시 Network Design : 종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병욱(1984), “시민보행광장조성 기본계획-서울시청앞 교통광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길(2003),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서울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2003), “서울문화 시민광장 조성계획 및 설계-서울 시청 및 시청 앞 광장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태현(1996), “도시 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대열(2001), ““중재 개념”의 도입을 통한 분당 신도시 중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혜경·이영근(1996), “ 도시광장의 특성 연구: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지역개발논총 제8집.
- 허원(1984), “도심지 시민광장 계획에 관한 연구-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홍섭·박길자(2002), “생활세계 관점에서 본 PIFF 광장의 문화 공간적 의미 이해와 사회과 교육”, 초등교육연구 제17집.

3. 신문 기사

- 강홍빈(2005. 2. 4.), “[금요칼럼] ‘그림의 떡’ 서울광장”, 동아일보.
- 권상은(2005. 2. 28.), “세종로네거리 東西 횡단보도 3월초 생긴다”, 조선일보.
- 김민호(2004. 5. 8.), “서울시, ‘잔디도 쉽다’ 시청앞 광장출입제한”, 국민일보.
- _____(2004. 5. 11.), “현장리포트/서울광장 개장 열흘 ‘명과 암’”, 국민일보.
- 김순배(2004. 5. 3.), “시민에 열린 서울광장/시민사회엔 닫힌 광장”, 한겨레.
- 김영상(2004. 11. 23.), “[기자수첩]서울광장은 정치광장(?)”, 헤럴드경제.
- 김창영(2005. 2.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1만명 돌파, 이달 28일까지 연장 운영”, 경향신문.
- _____(2005. 2. 18.), “광화문~시청~남대문~서울역 6개 횡단보도, 서울 중심부 보행벨트 구축”, 경향신문.
- 김철규(2004. 5. 11.), “[열린 세상] 서울 잔디광장 유감”, 서울신문.
- 남종영(2004. 11. 2.). “서울광장 ‘애물단지’ 전략-눈 오거나 추우면 잔디 못 밟아”, 한겨레.
- _____(2004. 12. 24.), “잔디만을 위한 서울광장/겨울철엔 사실상 ‘봉쇄’”, 한겨레.
- _____(2005. 2. 26.), “청계천·시청 등 서울도심 걷기 /육교·지하도 필요 없는 거리로”, 한겨레.
- 남종영·유선희(2004. 10. 4.), “서울광장은 보수단체 ‘앞마당’”, 한겨레.
- _____(2004. 11. 23.), “서울시-경찰 ‘광장 집회허가’ 갈등”, 한겨레.
- 남주리(2004. 11. 3.), “영하날씨엔 서울광장 출입금지”, 조선일보.
- 문성일(2005. 2. 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8일 폐장”, 머니투데이.
- 문주영(2004. 9. 18.), “서울광장 분수서 병원성 세균검출, 먹는물 기준 최대8만 배”, 경향신문.

박명식(2004. 5. 18.), “독자의 편지/서울광장 안전울타리 설치해주길”, 동아일보

방승배(2004. 5. 20.), “‘서울광장’ 집회금지 첫날 시위예고/의료-시민단체, 노숙자 입원제한조치에 항의”, 문화일보

송한수(2004. 6. 30.), “서울광장 잔디 “나 좀 살려줘””, 서울신문.

_____(2004. 8. 17.), “서울 in Seoul/개장 100일 넘긴 서울광장 ‘제자리’”, 서울신문.

_____(2004. 9. 23.), ““서울광장 대기오염 기준 초과””, 서울신문.

신형준(2004. 6. 30.), “서울광장 잔디보호 위해 7~9월 행사자제요청”, 조선일보

양홍주(2004. 10. 19.), “유지보수비 월드컵공원의 14.5배...너무 비싼 ‘서울광장’”, 한국일보

_____(2004. 11. 30.), “덕수궁 순라행렬 재현행사”, 한국일보

_____(2004. 12. 27.), “집회·시위 메카들이 사라진다”, 한국일보

염지은(2004. 5. 2.), “[사회] 서울광장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일경제.

유선희(2004. 10. 19.), “서울시청 잔디광장 유지비/상암 월드컵공원의 14.5배”, 한겨레.

_____(2005. 2. 24.), “서울광장 용도 변경안 또 보류”, 한겨레.

유신재(2004. 6. 5.), “‘잔디광장’은 ‘관변단체 광장’/6월말까지 집회신고 완료”, 한겨레.

_____(2004. 6. 8.), “서울광장, 시민위한 광장인가 잔디위한 광장인가”, 한겨레.

이경희(2004. 5. 3.), “편의시설조차 없는 서울광장/ 화장실·쓰레기통·벤치 등 설치 안 해 시민이용 불편”, 세계일보

이유종(2004. 10. 26.), “서울광장 상설무대 만든다/“잡은 설치·철거로 돈 낭비” 가로 15·세로 9m 규모로”, 서울신문.

이진한(2004. 10. 27.), “서울광장 잔디 “겨울엔 잠자요””, 동아일보

- _____(2004. 11. 3.), “한낮의 여유...서울광장서 점심시간 각종 공연”, 동아일보
- 장강명(2004. 5. 7.), “하이 서울 페스티벌 / 8,9일 볼거리 먹을거리 한아름”, 동아일보
- 장혁준·윤진(2004. 5. 8.), “서울시 “잔디광장 출입·집회 제한”/시민단체 “시민 발 묶는 전시행정””, 한겨레.
- 조명래(2004. 12. 20.), “<시론> 서울광장은 시민 것이다”, 경향신문.
- _____(2005. 2. 18.), “시청광장은 시 부속이 아니다”, 한겨레.
- 채지영(2004. 5. 11.), “메트로 인사이드 / 서울광장 개장 열흘”, 동아일보
- 천기원(2005. 2. 14.), “독자의 목소리 /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국민일보
- 최효찬(2004. 5. 4.), “차량진입 무방비 지적 따라 ‘서울광장’ 차단시설 설치키로”, 경향신문.
- _____(2004. 5. 7.), “서울광장 잔디 상처투성이,6일새 50만여명 다녀가...당분간 출입 통제”, 경향신문.
- _____(2004. 6. 8.), “서울광장에 잔디보호 깔판”, 경향신문.
- 황태훈(2004. 7. 19.), “서울광장 유지비 月2000만원...연말까지 1억5600만원 들 듯”, 동아일보
- _____(2004. 8. 28.), “[기자의 눈] 시민 발길 막는 ‘잔디광장’”, 동아일보

부 록

<서울광장 이용실태 및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광장에 관한 이용실태 및 이미지에 관한 조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을 이용하고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05년 2월

담당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동규

※ 다음은 서울광장 **이용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V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이곳 시민광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 한다	보통이다	자주 이용 한다	매우 자주 이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 ① 5월 개장 직후 ② 6월~8월 ③ 9월~11월
④ 12월~2월

3.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주중(월~금요일) ② 주말(토일요일) ③ 주로 국공휴일

4.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9시~12시) ② 점심(12시~2시) ③ 오후(2시~6시)
④ 저녁(6시~8시) ⑤ 야간(8시~12시)

5. 귀하께서 서울광장을 이용하실 때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약 30분 정도 ② 약 1시간 정도 ③ 2시간~3시간 정도
④ 3시간~4시간 정도 ⑤ 5시간 이상

6. 귀하께서는 서울광장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십니까?

- ① 가족단위의 소풍을 위해서 ②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③ 간단한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④ 만남(약속)이나 대화의 장소로서
⑤ 광장시설(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고
⑥ 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려고
⑦ 기타 _____

7. 귀하께서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시민, 청소년 축제(하이페스티벌 등) ② 대중가요콘서트, 힙합댄스 공연
③ 클래식 및 재즈 공연 ④ 시민단체 및 시민그룹의 문화공연
⑤ 시민단체의 행사 및 집회 ⑥ 전통문화 공연
⑦ 참여한 적 없다 ⑧ 기타 _____

8. 귀하께서 참여하셨던 각종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 ① 시민, 청소년 축제(하이페스티벌 등) ② 대중가요콘서트, 힙합댄스 공연
③ 클래식 및 재즈 공연 ④ 시민단체 및 시민그룹의 문화공연
⑤ 시민단체의 행사 및 집회 ⑥ 전통문화 공연
⑦ 참여한 적 없다 ⑧ 기타 _____

9. 귀하께서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승용차 ④ 택시 ⑤ 버스 ⑥ 지하철

※ 다음은 서울광장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표
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청결하여 이용할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광장시설의 외형 및 색깔이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4.	광장주변 경관 및 환경이 쾌적하고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5.	화장실, 음수대, 매점 등 편의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광장시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광장의 개방시간이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광장은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9.	횡단보도의 위치 및 광장 내 동선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서울광장 시설 및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광장 이용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는 다양하고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광장 이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안내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문화행사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광장 내 문화행사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광장 내 문화행사는 이웃과 친구와의 교류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광장 내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서울광장은 사색과 산책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서울광장은 축제 및 문화예술의 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서울광장은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만남의 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접하기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서울광장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서울광장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울광장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2. 서울광장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서울시청 앞이라는 서울광장의 위치 ② 서울광장의 주변 환경
- ③ 광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④ 서울광장의 잔디밭
- ⑤ 서울광장 분수대 ⑥ 서울광장의 편리한 교통
- ⑦ 기타 _____

3. 서울광장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광장의 지저분함(분수대의 오염) ② 주변 도로의 많은 차량
- ③ 교통의 불편함 ④ 광장 편의시설의 부족
- ⑤ 광장 관리의 문제점(잔디휴일) ⑦ 광장 운영의 문제점(이용제한, 사용료)
- ⑧ 광장 내 집회 및 시위 ⑧ 기타 _____

4. 서울광장의 시설 및 운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광장시설이 보다 세분화되고 보완
- ② 문화전시회 및 공연이 다양하게 마련
- ③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④ 분수대 등의 광장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
- ⑤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광장 주변으로 확대
- ⑥ 잔디휴일 및 유지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
- ⑦ ‘서울광장조례안’(다수 시민의 광장이용 제한, 사용료 부과 등 명시)을 개정
- ⑧ 기타 _____

5. 향후 서울광장이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 단위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②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③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문화역사 체험 공간
- ④ 다양한 문화이벤트나 축제, 야외 전시회 및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
- ⑤ 청소년 등의 일반시민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열린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
- ⑥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교류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
- ⑦ 기타 _____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2. 연령	3. 거주지	4. 직장(학교) 위치
① 남자 ② 여자	()세	()시 ()구	()시 ()구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 ② 전문기술직 ③ 관리직 ④ 사무직
 ⑤ 생산직 ⑥ 판매서비스직 ⑦ 농·축산업 ⑧ 문화·예술가
 ⑨ 학생 ⑩ 주부 ⑪ 무직 ⑫ 기타

6.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재) ③ 고등학교 졸(재)
 ④ 대학교 졸(재) ⑤ 대학원 졸업(재) 이상

7.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③ 200만원~300만원
 ④ 300만원~400만원 ⑤ 400만원~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